

비바

성폭력

Vol.2
2011 상반기호

개소 20주년
특별호

기획특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존자와 함께한 대담한 도전

쟁점과 입장

여산을 어디에 써야 할 지도 모르는 정부, 이제는 여산후장이다
인권위,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어……

대안읽기

내가 생각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방향

프리즘

가족이라는 이름의 장치

성문화 읽기

TV를 보다, 그리고 불평항을 느끼다.

사례연구

시립 걸차 내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기



생존자의 함께하는 대담한 단전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 당시에는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고 버겁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 한 단체가 문을 열고 20년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기여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렇지만, 더 좋은 세상을 희망하며 움직이는 곳에 있으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문턱을 마다하지 않고 지난 20년간 상담소를 믿고 찾아와 도전과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한 생존자들이 보여준 기적은 6만 7천여개의 상담일지에 폐곡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한 뜨거운 20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 비판과 조언 속에서 걸어갈 남은 여정은 과거 못지 않게 고되고 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또 용기있는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발간사 중

바

성폭력

Vol. 2
2011 상반기
개소 20주년
특별호

1

기획특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존자와 함께한 대담한 도전]

8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운동에 새 길을 내다
16	여성주의 상담과 사건 지원
24	상담소와 법정책 운동
31	성문화 운동의 어제와 오늘
37	내가 생각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향방

2

쟁점과 입장

46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 지도 모르는 정부, 이제는 예산투쟁이다
50	인권위,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어……

대안읽기

55	피해자 리더십, 살아움직이는 피해자의 힘을 말한다
----	-----------------------------

프리즘 [가족이라는 장막을 걷어내기]

62	'정상가족(the Family)'을 둘러싼 허구와 현실
68	판결 사례로 보는 친족성폭력과 가족
71	예측할 수 없었던 내 '엄마'
75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뜻있는 '귀가'

통계 이야기

80	여성가족부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87	정부 부처가 제안하는 성폭력 예방법, 이대로 지키면 돼?

성문화 읽기

92	TV를 보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다
----	----------------------

3

생존자 말하기

100	액션으로 피어나는 말하기
104	S의 말하기

성폭력과 사람들

111	혼자가 아니게 되기 위한 연습
-----	------------------

사례연구

118	사법 절차 내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기
-----	---------------------

상담통계

122	2010년 상담통계
-----	------------

4

여성주의로 문화예술읽기

130	매혹의 몸짓으로 무겁게 말 걸기, 여성 예술가에게 성공과 자기완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	--

날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1

기획특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존자와 함께한 대담한 도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운동에 새 길을 내다
여성주의 상담과 사건 지원
상담소와 법정책 운동
성문화 운동의 어제와 오늘
내가 생각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방향

{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존자와 함께한 대담한 도전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2011년인 올해로 개소 2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 최초의 성폭력전문상담소로서 1991년 4월 13일 개소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으로 한 관련법·제도의 제·개정 활동과 약 6만 7천여 회의 사건지원,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담론 생산 및 대중운동 등 지금까지 활동해온 상담소의 역사는 한국 사회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개소 당시 성폭력 피해여성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던 두려움과 설렘, 치열한 고민은 성폭력 사건지원의 현장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쟁점에서, 다양한 대중과 만나는 장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폭력 운동의 변화와 시도의 역사로 새겨지고 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본 상담소의 20주년사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20년 활동을 정리해본다.

가장 먼저 1991년 상담소 개소 당시를 중심으로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사회의 배경과 함께 사회에 커다란 파급을 미친 상담소 역사의 첫 장을 펼쳐낸다. 이어지는 글들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상담과 지원에 있어 상담소가 지향해온 여성주의 상담과 사건 지원의 원칙과 지향을 나누고, 성폭력특별법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 활동 기록과 최근의 쟁점을 살펴본다. 또한 성폭력과 성별규범을 둘러싼 사회의 인

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문화 운동의 쟁점과 전망을 독자와 고민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향방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의 현장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다.

20년의 활동을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 없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상담소의 역사를 개략적으로나마 훑어봄으로써 현재 상담소 반성폭력 운동의 지향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생존자를 지원하며 생존자와 함께한 상담소의 도전은, 첫 상담 전화를 받은 순간의 설렘과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대담함을 안고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운동의 역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사 『성폭력 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운동에 새 길을 내다'

최영애 | 본 상담소 초대 소장

20년을 되돌아보며

1991년 4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상담소는 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를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별 권력의 문제이자 여성의 성(sexuality)에 관한 폭력으로 재정립하면서 독자적 여성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글을 통해서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초기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본 글은 「성폭력 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1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운동에 새 길을 내다」를 요약·정리했다. 원문은 상담소의 지향과 쟁점 등 개소 당시의 다양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초기 활동을 중심으로 편집팀에서 정리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창립하기까지

시대 상황과 배경

상담소가 출범한 199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은 80년대 엄혹한 군사 독재시기의 민주화운동단체들이 90년대 새로운 민주정권을 기대하며 시민·인권·여성운동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며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시기였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과 이에 대한 여성운동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90년대 들어서는 ‘성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다만 여성운동단체 대부분은 성폭력을 계급모순의 문제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중·노동탄압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일부 여성학 전공자들에 의해 여성문제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리는 독자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생겨난 시대적 배경이자 내부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상담소 개소

1980년대 말 강간, 피임, 인공유산 등의 성문제를 연구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졸업생과 교수 등 발기인 60여 명의 호응과 참여로 1990년 8월 초에 강간위기센터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상담소 창립 준비 기간에 ‘강간위기센터’라는 명칭 사용²⁾을 비롯, 조직 구성과 재정 확보 방안 등 기본 골격을 짰다. 한편으로는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미국의 강간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와 같은 곳을 설립하지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강간만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강간’이라는 용어가 행위중심적인 표현이어서 성폭력의 본질인 ‘폭력성’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언론에서는 ‘강간’을 거의 ‘성폭행’이라고 지칭했고,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할 때도 ‘성폭력’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냈다. ‘상담소’는 영어인 ‘센터’를 한국어로 바꾸자는 의견에서 나온 것인데, 역동적인 여성운동단체의 명칭을 완벽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피해 여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친화적이며 실제로도 내담자들과의 소통에 있어 상담이 가장 효과적인 기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데, 이 프로그램은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시이자 다른 성폭력 상담기관에도 좋은 예시가 됐다.

1991년 4월, 한국 최초의 성폭력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소식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매우 사적인 문제이며 실상이 거의 은폐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한다는 점, 발기인의 대부분이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언론은 상담소의 출현을 흥미로워했다. 개소 소식이 일찍이 보도되는 바람에 개소하기 전부터 상담전화의 문의가 쏟아졌다. 이렇듯 상담소는 이슈의 참신성과 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시민들의 일정한 호응을 받으며 출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초기 활동

_ 왜 ‘상담소’로 운동하게 되었나

성폭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영역이었다. 1989년 수행한 일반 범죄 통계조사에 따르면 강간 사건이 1975년의 2,794건에서 1987년에는 5,034건으로 80퍼센트 이상 늘어났는데,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성폭력 신고율이 단 2.2퍼센트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드러났다. 성폭력 문제의 이러한 심각성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8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성편향적 판결을 통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성폭력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지만 이런 사건들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다뤄졌고, 많은 성폭력 사건은 신문 지면의 1단 기사로 처리되기 일췌였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중운동 여성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통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감

을 갖고 있었다. 성폭력은 연령과 계층, 학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상담소 발기인들은 성폭력 문제가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운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유사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주변여성들로부터 보고 듣고 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감대와 공분을 이끌어내기 쉬웠다.

현장에서의 실태 파악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당시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왜곡되어 있었다. 국가는 ‘보호 받을 만한 정조’만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거나, 여성의 동의 없이는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로 ‘진정한 강간은 없다’는 등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이중적 성규범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경우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피해여성은 도리어 죄인이 되어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며 피폐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여성을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간주하고, ‘남성의 강한 성욕은 본능인데 단정치 못한 품행으로 그것을 자극한 여성이 더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사람들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사람들이며 피해여성의 삶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사회적 설득력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담소’ 활동은 성폭력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유효한 기제였다.

_ 붓물처럼 터져 나온 절규

초창기 상근자와 상담원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딱 두 가지, ‘두려움’과 ‘설렘’이었다. 개소일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보다 전화가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움이 더 컸지만 정식 개소 전부터 상담전화의 폭주해 놀라

움과 가슴 벅찬 감동을 맛봤다.

초창기 피해자 상담은 보통 10년 전의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20, 30년 전의 사건도 많았으며 1년 이내 발생한 사건은 매우 드물었다. 그리고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상담소 출범 시기에 어린이 성폭력 사건인 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상담전화를 할 수 있는 심적 동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

상담소는 1991년 ‘김○○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근친성폭력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에 연루된 ‘김○○·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결성했다. 이후 성폭력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연대활동을 통해 다른 단체들과 재판 준비를 돕고 대중과 언론 대상의 홍보 자료를 만들고, 피해 당사자를 격려하는 등 활동을 하며 상담소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_ 성폭력의 실태를 세상에 ‘드러내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파생된 것임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위해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고통과 성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드러내기’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피해여성들의 고통이 전체여성 집단의 문제임을 이론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했다.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0퍼센트를 차지하며, 성폭력 가해자의 70퍼센트가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힌 상담소의 첫 상담사례통계 보고서는 사회에 충격을 줬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친인척과 이웃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사실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표출했다. 성문화 운동 역시 성폭력 실태 자료를 토대로 전개해 대중의 호응과 운동의 정당성을 확

득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상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단체였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나 대책위원회 활동에서 이런 통계자료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됐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관련 청문회에 주요한 근거자료로 제시됐고 각종 언론매체는 상담소의 성폭력 통계와 분석 자료를 비중 있게 다뤘다. 상담소는 이를 토대로 성폭력 사건들이 결코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후 성희롱 상담사례와 통계자료는 최초의 성희롱 재판을 승소로 이끄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_ 현실을 반영한 법 제개정의 필요성 대두

상담소는 일련의 사건과 상담지원 활동을 통해 성폭력이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어 여성에게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성적 인권유린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사건의 70퍼센트가 아는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벌어지며,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통념과 함께 성폭력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당시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만 고소를 할 수 있게 한 ‘친고죄’ 조항과 강간을 입증하려면 ‘항거불능의 현저한 저항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라고 보았다. 어렸을 때 피해의 경우 본인 스스로 고소하기가 어렵고, 성인이 되어 겨우 고소할 용기를 내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형법에서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명명해 성폭력을 인격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가 아닌 ‘정조’를 침해한 죄로 규

정하고 있다는 점에 격분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상담소는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의 대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연대한 여성단체들과 형법 개정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제정 운동을 전개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은 3년 여의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했고, 1993년 12월에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³⁾.

_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상담소가 개소한 1991년 4월, 최영애 소장은 국제여성재단(The Global Fund for Women) 주최의 '국제 반성폭력 운동가 워크숍'에 참여했고, 전 세계 반성폭력 운동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상담소의 이론화 작업에 긴요히 활용됐으며, 향후 방향과 지원체계 구축 등에 있어 한국 반성폭력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다.

또한 1993년 24시간 위기센터를 설립해 1999년까지 운영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1994년에는 근친성폭력과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인 '열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997년에서 2009년까지는 성폭력문제연구소를 운영해 외부 연구진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려 했다.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창기의 노력은 20년 상담소 역사에서는 물론 우리 사회 반성폭력 운동사에서도 의미 있는 몫을 해왔다.

또 다른 20년 역사를 시작하며

상담소는 성폭력 문제를 한국의 대표적 여성 대중운동으로 자리 잡게 했다. 성폭력이 가부장제 사회와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독자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성폭력의 실상을 구체적인 통계와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기'한 것이야말로 반성폭력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성장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와 관련 법률이 마련됐고 '성폭력'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상담소 창립 시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제 다시 새로운 20년 역사를 써나가는 '재창립'의 마음으로 초창기의 논쟁들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다.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작업이 앞으로 다른 성폭력 상담소들에게도 좋은 시사점과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및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의 자세한 내용은 '상담소와 법정적 운동'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여성주의 상담과 사건지원¹⁾

이어진 | 본 상담소 상담인권국장
정정희 | 본 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前 원장

상담 속의 운동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해야 한 일,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상담’이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성폭력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나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처음 상담소에서 상담을 시작하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마주하는 일은 가슴 벅참과 함께 절망,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담소에서 왜 상담을 해야 하는지, 상담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를 꾸

1) 본 글은 『성폭력 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2부 ‘상담하는 여성주의’, 3부 ‘열림터, 그녀들의 쉼터’를 요약·정리했다. 지면상의 한계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열림터의 전체 상담운동 중 상담 및 사건지원의 쟁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기술했음을 밝힌다.

준히 진전해갔다. 상담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것이지만, 상담소에서 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나만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폭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성폭력이라는 걸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상담소를 찾는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야기를 가슴에만 묻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상담은 단순히 상담만이 아니라 운동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내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절실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심리상담과 사건 지원은 피해자나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주변인들의 전화로 시작됐다. 상담을 시작한 초기 내담자들은 대부분 “이게 상담할 만한 내용인지……”, “제 주변의 사람 중에……”라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자기 경험을 이해할 준비가 된 상담자, 훈련받은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에 서로 감격을 나누기도 했다. 상담소는 20년 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상담과 정서적 지원, 의료적 지원, 법적 지원이 한 개인에게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지원 형태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법적 지원의 경우 변호사를 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상담자 겸 사건 지원자, 변호사 삼자의 통합적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가 법적인 과정을 치유 과정으로 통합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외부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는 내담자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치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내담자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의 보폭을 맞춰나갔다.

통합적 사건 지원에는 생활과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도 포함된다. 사회적 지원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싶지만 당장 버스가 없는 내담자,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와 어렵게 생활하느라 당장 끼니가 어려운 내담자, 동거남을 피해 두 딸과 집을 나왔지만 당장 오갈 곳이 없는 내담자, 나이 마흔이 넘었지만 남성 혐오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내담자, 정신지체 장애가 있지만 장애 진단을 받는 방법을 몰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 성폭력 피해로 임신해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 내담자,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없이 동생들을 양육해야 하는 내담자 등 성폭력 피해 자체 말고도 더 급하게 지원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지역 동사무소를 찾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노동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을 지원했다. 지역 사회복지관을 찾아 방과 후 학습지도와 사례 관리를 요청했고, 담임 교사를 설득해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졸업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생활과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상담소의 통합적 지원 속에서 어우러졌을 때 내담자의 치유는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활이 안정되면서 상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사건 해결 과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삶의 공간이 필요한 생존자를 위한 ‘열림터’

1994년 9월, ‘모든 여성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으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라는 의미를 담은 ‘열림터’는 삶의 공간이 필요한 생존자를 위해 문을 열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운영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열림터는 1994년 두 명으로 출발해 매년 여러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17년 동안 모두 253명이 짧게는 이틀부터 길게는 1400여일 동안 가장 어

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함께한 곳이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다. 열림터에서는 생활인들에 대해 사건지원, 상담지원, 직업훈련을 진행하며 학습, 의료, 학교생활, 문화생활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열림터는 여성주의 상담을 지향하고 반성폭력 운동으로서 성문화 바꾸기에 주력하는 상담소의 활동 목표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열림터의 생활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아홉가지 운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철학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생활인의 일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약속이다.

- 첫째** 실제 생활에서 나이와 생각과 처지의 차이를 넘어서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둘째** 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폭력으로 갈등 해결을 하는 것이 쉬운 열림터 생활인들에게 어떤 폭력도 반대하도록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다.
- 셋째**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 회복의 시작으로 보고 사건지원을 하는 것이다. 비록 가해자가 가족이기는 하나 가해자 처벌이야말로 성폭력 피해가 전적으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 넷째** 생존자가 갖는 가해자 아버지를 향한 양가감정을 이해하고, 가해자의 가족이지만 피해자를 지지해 주어야 할 엄마라는 여성의 삶과 친족성폭력피해자로서의 딸이라는 여성의 삶을 서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다섯째**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무기력한 성폭력피해자란 우리 사회의 통념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 여섯째** 열림터 생활인 대부분이 친족성폭력 피해라는 것을 감안해 친족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알리고 거기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 일곱째** 생존자들의 인권 보호에는 무디고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제도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 여덟째** 생활인들이 쉼터 이후의 삶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아홉째**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열린 운영을 통해 열림터가 사회와 격리된 공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열림터 운영철학

지난 17년 동안 열림터에는 늘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십 명의 활동가들과 253명의 생활인들이 열림터와 함께 해오면서 애초에 열림터가 지향한 원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힘과 의지가 모여져 열림터가 반성폭력 운동에서 생존자 지원의 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며 치유의 공간으로 지속될 것이다.

피해자의 긴 '삶'의 보폭을 따라가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된 뒤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양한 사회·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300~500만 원)을 받게 되고, 줄곧 지적받은 공소시효나 음주 감경에 관해서도 피해자 보호 장치와 가해자 처벌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피해자 요구의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상담소 통계를 보면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 말고도 사건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구하는 피해자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폭력 사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기반이 피해자의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또 다른 문제는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력의 특성상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는 일회적이기보다 피해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 법적 소송 단계를 밟지 않아 친권이 남아 있고 성폭력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양 의무를 지게 되거나,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가해자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꿈과 미래를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상담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상담소 회원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생존키트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와는 별도로, 성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비를, 대인기피로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행비를, 가해자인 아버지에게서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하려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단순히 의료적·심리적·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폭넓은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생애 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통해 또 다른 피해에서 보호받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에, 남은 과제들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총 6만 7천여 회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성폭력 피해의 진실과 현실을 밝혀왔다. 갈 곳 없던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상담소의 지원을 통해 함께 힘을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고립된 개인의 경험에서 벗어나 내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상담소는 상담 운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성폭력 상담 자체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존자가 지닌 내부의 힘을 신뢰하고 지지하며,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게 하는 데 공헌해왔다.

그러나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한계도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법제도를 활용한 운동 방식을 채택하면서 상담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여성의 피해를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현실에서 개인이 고통

을 감당할 수 있게 심리적인 지원만 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또 피해자들과 제대로 소통하기보다는 단기간의 해결 중심 상담을 지향하면서, 좀더 근본적인 차원의 심리적 지지나 치유 상담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일 대 일 상담의 형식이 아니라 자조 집단 구성이나 생존자말하기대회 같은 집단적인 장을 더욱 활발히 확산시키지 못했다는 점,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원들을 훈련 또는 재교육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적절히 독려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자주 지적되는 한계점이다.

또한 상담을 통한 생존자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영역의 연구는 외국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주년을 맞으면서 더욱 절감하는 부분이다. 상담소는 2009년부터 면접 상담을 신청하는 내담자들에게 정보 보호를 전제로 연구를 위해 사례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향후에 이런 사례들이 성폭력의 실태 연구와 깊이 있는 질적 분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2009년 이전의 상담 사례 활용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피해자를 향한 지나친 보호주의로 성폭력 관련 연구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상담소는 내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도, 생존자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상담은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하는 중요한 운동 방식이다. 상담은 한 개인을 만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주변과 나를 인식하며, 내가 지닌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운동인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에서 상담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권력의 약자인 여성과 소수자들

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자 생존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생존자 개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성폭력을 용인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여성주의 상담은 반성폭력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상담소와 법정책 운동¹⁾

이경환 | 변호사 / 본 상담소 법정책 자문위원

들어가며

지난 20년 동안 법정책 운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매일같이 상담 창구를 통해 호소되는 피해생존자의 현실은 모두 열악한 법제도와 맞물려 있었고, 성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때면 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서 우리 상담소의 의견이나 상담 통계 등을 요청하는 일이 잦았다. 따라서 특별히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상담소는 법정책 운동을 매년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그것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상담소가 너무 법제화에 치우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법정책 운동을 통해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던 법제도

1) 본 글은 「성폭력 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4부 「법의 '객관성'을 재구성하다」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위 책에서는 법정책 운동의 역사와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분량상의 한계로 상당 부분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상 개선안의 상당부분이 법조문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가부장적 질서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법이 추구하는 ‘정의로움’과 ‘객관성’의 실체가 성편향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성폭력 피해 사례와 관련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지도·감독’과 상담일지와 회계장부의 전산 중앙 집적화 요구 등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법정책 운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성희롱 문제의 공론화,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논쟁을 중심으로 상담소의 법정책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덧붙이기로 한다.

법정책 운동의 역사와 쟁점

성폭력 법정책 운동의 시작,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상담소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은 90년대 초반에 발생한 두 사건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첫 번째 사건은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김○○ 사건’(1991)이고, 두 번째 사건은 13년 동안 자기를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김○○·김△△ 사건’(1992)이었다.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운동계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는 국가가 책임이 있으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였다. 1992년 여성연합에서 만들어진 ‘성폭력특별법 제정특별위원회’(이하 성폭법 제정특위)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고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법 제정

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은 전체 법체계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성폭법 제정특위에 서는 직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국민청원을 하고, 성명서 발표, 거리 캠페인, 토론회 개최 등 총력을 기울였으며, 199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었던 점을 활용하여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 정당들은 성폭력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드디어 199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은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지만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법 개정 운동이 곧 뒤따르게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지금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수정된 것은 일곱 번으로, 상담소는 이와 같은 법개정 과정에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친족성폭력에서의 친족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이 마련된 2차 개정,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된 8차 개정, 친고죄 범위 축소,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 공개금지 내용 등이 반영된 13차 개정 등의 성과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법개정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의지만으로 추진된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굉장히 많은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상담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에만 바빴던 한계를 보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 성희롱 문제의 공론화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 관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남성들의 짓궂은 놀림 정도로 여겨지던 가벼운 정도의 성추행이나 언어적인 성적 추근거림 등 이른바 ‘성희롱’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인식시킨 우리 사회 여성운동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상담소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성희롱 공대위를 만들어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였으며,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성희롱이 친밀한 인관관계를 위한 윤희유 정도가 아니라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상담 사례와 외국의 법 제도 등을 알려내는 작업을 하였다.

1994년 1심 판결은 가해자인 신 교수에 대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 판결은 교육상 또는 직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적 접촉 또는 친밀감의 표시나 사회 관습상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언동은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피해자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신 교수의 행위가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항소심을 파기하여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남기게 되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 여성운동의 쟁점을 풀어나간 공익소송과 여성운동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며, 이 사건 이후 입법운동을 통해 성희롱의 개념이 법제화 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조치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으나, 여전히 어떤 행위까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로 정의되면서,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학생들, 여성·시민단체들, 학자와 법률가들이 노력한 결과, 성희롱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 관행이 아니라는 점만

큼은 이제 분명하게 인식된 듯하다. 이 사건을 통해 성희롱 문제의 공론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성희롱 개념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은 아직도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 정책을 둘러싼 논쟁

신상 공개 제도 2000년 2월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격렬한 찬반양론이 일어났다. 상담소는 신상 공개 제도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숨겨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찬성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몇몇 인권단체는 가해자의 인권을 근거로 반대론을 펴기도 하였다. 찬반논쟁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지만, 그 뒤에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등록과 세부정보 공개 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 도입, 인터넷 정보 공개 등 추가적인 내용 수정에 따라 '가해자 인권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쟁이 일어났다. 상담소는 초기에 신상 공개 제도를 적극 찬성한 것과 달리 최근 확대된 인터넷 공개 제도 등에 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신상 공개 제도의 확대가 본래 취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급격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신상 공개 제도를 강하게 찬성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소로서는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잉 형벌 정책 2006년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안양 초등학교 살인 사건, 일산 초등학교 납치 미수 사건, 그리고 이른바 '조○○ 사건', '김○○ 사건', '김○○ 사건' 등의 강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되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정책이 만들어졌다. 전자발찌 제도도 이와 같은 국가형벌권의 강화 흐름 속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과잉 형벌 정책은 아동 피해자와 같이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회적인 관심을 쏟는 피해자의 이분화를 가중시키고,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고립, 배제시킴으로써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기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상담소는 2010년 3월 최근의 과잉형벌 정책 경향에 관해서 다른 인권단체들과 함께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인 과잉 형벌 정책에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잉 형벌 정책에 대한 논쟁에 있어 상담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이 대립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뛰어넘지 못한 것과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운용 실태 점검, 현실적인 대안 제시 등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측면이 있다.

법정책운동의 평가와 지향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성폭력 관련 법정책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상담소의 법정책 운동이 중요한 몫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정책 운동의 성과가 성폭력 분야를 넘어선 다른 분야의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으로 확대되고, 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정책 운동을 통해 상담소가 가진 여성주의적 지향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선진적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견줘 사법실무는 여전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책 운동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운동 전략이 요구되는 시

상담소 성문화운동의 어제와 오늘

김민혜정 | 본 상담소 前 사무국장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법과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일상에서 성폭력이 예방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 제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실제 운영 내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운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목표 설정과 진행 과정 면면에서 철저한 운동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책 운동이 정형화된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새로운 상상력과 열정은 지금까지 우리 상담소의 법정책 운동이 꿈꿔온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현실로 만들어온 성과를 넘어, 진정한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성폭력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다” 다소 미묘한 이 문장에 7만여 성폭력 사례와 함께 해온 상담소의 좌표가 담겨있다. 즉, 한 사람에게 일어난 성폭력은 사회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의 일상도 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는 세상을 바꾸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의료적, 법적 측면에서의 지원활동을 하며, 또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및 홍보, 출판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는 목표를 출발부터 분명히 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기관이자 NGO·반성폭력 여성운동단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끔찍한 경험인 만큼 흔히 개인에게 할당된 특수한 비운, 처벌이라고 받아들여지곤 한다. 상담현장에서 슬픔과 분노를 돌보면서도, 이를 객관화하여 문제의 원인제공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많은 품이 필요했다. 한편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에서, 무엇보다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다듬는 일은 끝없는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상담소 성문화운동의 내용과 성격을 간략히 돌아보고자 한다. 개소 20주년을 맞아 풍성한 회고와 제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성폭력의 원인’, 당신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

가부장적인 남성중심 사회는 모든 세상사, 개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성폭력 역시 그 작용의 일부다. 성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도를 펴 전체 지형을 파악하고 현재 위치를 이와 연결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연간 1만여 명 대상의 교육, 책자발간과 캠페인, 언론 인터뷰는 우선 ‘성폭력이라는 게 있다더라’, ‘조심해야 한다더라’에서 ‘성폭력은 왜 일어날까?’라는 질문으로 옮겨오도록 했다. 이때 제시되는 것이 ‘성폭력 통념’이다. 남성의 성욕은 참기 어려운가?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성폭력을 부추기나? 성폭력은 술이나 정신이상 때문에 하게 되는가? 이렇게 이어지는 통념목록을 놓고 토론하다 보면 우리가 남성의 시선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관용하는 데 이미 익숙해진 반면 여성의 행위에는 쉽게 혹독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 개별 사건을 넘어선다. 남성의 시선과 언어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이고 암묵적인 관행들 역시 성폭력의 중요한 일부이다. 수사·재판기관에서 내리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결정들, 여성연예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검찰, 언론, 고위층 남성들의 협력과 은폐도 한 예이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자체보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오랫동안 위축과 자책의 후유증을 앓게 된다. 상담통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며, 성폭력은 특이한 가해자와 온 나쁜 피해자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 모든 이가 가담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통찰로 우리를 이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마을과 학교 공

동체 대상의 젠더감수성 교육 등은 이러한 재인식을 통해 ‘제3자’를 성폭력 문제의 주인공으로 자리 바꿈하는 사업이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일 년에 한 번 씩 개최되는 성폭력피해경험자의 직접 말하기 장이다. 성폭력에 대해 ‘누가 말해야 하는가’로 시작된 고민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로 이어진다. 나에게 말할 것이 있는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성폭력경험과 피해자를 타자화했던 경계어린 시선은 희미해진다. 피해자가 자기 경험과 만나 화해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되살아나는 과정을 보면서 성폭력의 횡포는 다름 아니라 침묵하고 외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서려면 나는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는 어디에 있고자 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함을 느끼게 된다.

혼란스러운 ‘성폭력 해결’, 옥석가리기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성폭력 문제’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운동 역시 남성중심적 인력에 영향을 받아왔다. ‘나도(내 자식, 남편, 친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고, ‘나도(내 딸, 부인, 친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부장적 사회는 성폭력이 성차별과 배제라는 일상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감추고, 질에 대한 페니스 삽입이라는 이미지로만 각인시키면서 공포감을 통해 여성의 성과 일상을 통제한다. 가부장제의 이러한 ‘활약’에 반성폭력 운동이 포섭되면,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높아질수록 동시에 여성들은 더욱 위축되는 반작용이 발생한다. 이 때 사회구성원이 할 수 있는 진전된 실천이란, 좀 더 피해자에게 배려와 동정을 표현하고, 힘 있는 자가 약자(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 정도이다.

근 3~4년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어린이 대상 성폭력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사회의 관심과 자원이 이에 집중되어, 정부와 국회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개정, 예산편성을 하고 언론은 성폭력 피해자를 아동에 한정하는 보도에 집중했다. 그러나 보호하는 자와 받는 자의 구도가 명확해질수록, 힘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차별과 배제는 더 커진다.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화학약물로 치료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가깝고 평범한 이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황과도 다를 뿐 아니라, 특이한 사람(만)을 조심하면 된다는 통념을 강화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응하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된다. 상담소는 어린이 성폭력이 가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성별 권력 차이가 성폭력의 원인이므로 성인여성과 어린이를 분리하지 않는 보편적인 성폭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2004년부터 공동개최해 온 <밤길되찾기시위>는 보호를 내세운 통제를 비판한다. 성폭력을 조심하라는 이유로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약한다면 성폭력이 낳는 결과인 위축과 고립이 그대로 생겨나며,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던 주변의 남성들이 그 신뢰와 힘을 이용해 성폭력을 해왔다는 것, 예비 피해자를 조심시키기 이전에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데 자원을 먼저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주된 메시지이다.

‘남성되기’, ‘여성되기’가 성폭력과 만나는 순간

좀 더 보호받거나, 보호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성폭력은 오랜 세월 맹위를 떨쳐왔기 때문에 선불리 ‘해소법’을 찾는 것은 성급한 접근일 수 있다. 성폭력의 일상적인 영향력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와 ‘남성적 관계와 성문화에 대한 성찰’ 컨퍼런스는 ‘평범한 남성성’과 성폭력의 관계를 연구한 시도이다.

2003년 670여 명의 현역, 제대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군대내 성폭력이 평범한 남성다움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25%의 응답자가 군대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문제제기하지 않았고 83%는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 성폭력적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 피해자는 되지 않은 채 ‘가해하기’만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남성되기 과정에서 성폭력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인데, 반면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 느끼고 문제제기한 경우 ‘남자’가 아니라고 낙인 찍히게 된다. 2004년 ‘남성 성문화 컨퍼런스’에서는 가급적 감정을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더 과격한 행동으로 힘을 과시하며, 동성 간 스킨십은 절대해서는 안 되고 이성에게는 어떻게든 스킨십을 관철하려는 이성애적 남성되기의 매뉴얼이 분석됐다. 여기서 시작한 <성폭력 근절, 남성도 된다>는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남성이 아니라, 몸과 감정상의 자기-개인을 직면하고 힘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관계 맺을 수 있는 연습이 먼저 필요함을 제안하는 캠페인이다.

‘여성되기’에서도 성폭력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가녀린 몸을 유지하고 때로는 성에 무지하고 때로는 섹시하게 밀고 당기라는 여성되기 생존법은 승산이 있을까.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해서 이따금 혹은 자주 겪게되는 실패와 좌절은 인간적인 자존감을 침해하고, 여성다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삶의 질을 반납하게 된다. 상담소는 이 승산없는 구도를 이탈해보자고 제안한다. <욕망찾기>, 춤 세라피 프로그램은 자기 몸의 역사와 욕망을 직접 탐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다. 꿈 찾기 프로그램은 나만의 속 깊은 자아를 긍정함으로써 미래를 좀 더 거침없이 기획하도록 돕는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백전백패라는 성폭력 신화에 맞서 반격이 가능하다고 계획을 짜고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훈련이다. 성별규범이라는 질서를 이탈하여

다르게 사는 법을 몸으로 연습하다보면 그것 없이도 멋있게 살아가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살맛나는 세상'을 지금 여기서 만들고 맛보는 프로그램들이다.

살맛나는 세상을 향해가는 더 큰 지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찾아가다보면 점점 더 크고 복잡한 지도를 만나게 된다. 가정폭력, 성매매는 남성중심 사회가 여성을 경제·관계·성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정책들이다. 이들이 성폭력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결고리가 더 면면히 드러나야 한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이성애주의가 '정상'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성폭력은 그 '정상' 속에 폭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에 서로 만난다. 여성연예인의 죽음은 성폭력이 한국사회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남성권력 층의 유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위법·탈법 행동을 감시, 고발할 수 있는 정보망도 필요하다. 임신, 출산, 낙태 등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심해지고 있는 이때, 성폭력처럼 여성-몸의 목소리를 드러내 온 경험은 더 발휘되어야 한다. 성폭력에서 출발한 성문화바꾸기 운동은 지도를 더 크게 펼치고 흩어진 길을 연결해 나가고 있다. 살맛나는 세상을 향해가는 지혜로운 전략과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 곳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방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문채수연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주의실천연구소)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일시 2011년 3월 18일 오후 4~7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이윤상 (이하 이) _ 오늘 좌담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특별판 <반성폭력>(2호)의 기획특집을 위해 마련된 자리고, 여기서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미래'에 대해 거침없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언론, 사례공개 하기 싫다는 내담자,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는 고민은 깊어져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나누는 기회는 적었던 것 같다. 오늘 우리 고민을 가감없이 내놓는 용기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어느덧 막강해진 '성폭력'이란 말, 여성의 몸을 더 보호하게 만드는 건가?

이 _ 성폭력이라는 말을 여성단체가,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확산시키지 않

았나 싶다.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가 너무 무겁게 만든 건지, 아니면 성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이렇게 무겁고 기계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건지. 여성단체가 무겁게 만든 게 훌륭하지 못한 전략이라면, 우리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때가 됐나?

이임혜경 (이하 이임) _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20년 이상이 흘렀고, 성폭력 개념은 어느덧 언론이 장악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무겁고 끔찍한 사안만 보여주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것만 각인되고, 성차별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를 성폭력을 통해서 부각시키려고 했던 우리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2008년에 정몽준 국회의원 후보가 여성기자 뺨을 맞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우회는 많은 고민 끝에 여성단체 성명서 연명에서 빠졌다. 이 사건을 '성차별적 행위'라고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성희롱이라고 해서 손쉽게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어느 노조에서 몸싸움하다가 여성 노조원의 가슴을 스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더라. 이런 식으로 성폭력이 이용당하는 게 여성을 위해서도, 운동의 전략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본다. '성폭력/성희롱'이 여성의 몸을 더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 운동이 여성의 몸을 부끄러움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모든 문제가 '성폭력'으로만 환원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이임 _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무리하게 자기 문제를 '성폭력 문제'로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얘기를 내담자나 다른 사람에게 못하는 이유는 이런 고민들이 자꾸 피해자 비난과 혼동되기 때문이다.

문채수연 (이하 문채) _ 내가 고민했던 것도, 분명 성폭력으로 말하기 힘든 사건인데 당사자는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당사자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였다. 법이나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계속 법과 제도에 의지하고, 성폭력으로 말하지 않고도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말이다. 괴로움, 배신, 실연, 분노, 복수 같은 말로. 당사자는 '그럼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것만 묻는다. 여성들의 상황을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성관계와 성폭력이 연속선 상에 있지만, 그 중간 경계를 어떻게 설명해 내야 할까 고민이 든다.

이임 _ 이걸 외부에 얘기하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 상담이 95%라면 이런 사례는 사실 5% 정도인데, 여성을 폄하하고 선정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5%를 잘못 다루어서 95%가 은폐되거나 사라지는 결과가 날까봐 두렵기도 한 거다.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 왜 입장을 말하기 어려웠나?

이임 _ 성폭력 법제화는 우리의 요구였고 필요한 것이었고, 형법 상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법제화가 오히려 여성의 몸 읊어대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큰 흐름이 있었던 거 같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만 하면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마치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문채 _ 정면 싸움과 다양한 논의, 이 쟁점을 애써 피해간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 순간에 우리가 눈치를 보고 몸을 사렸던 거다. 왜 그런 건가?

배복주 (이하 배) _ 우리가 인권을 운운하면, 사람들은 바로 “너희 하는 일이 뭐냐? 가해자를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나. 선택지가 두 개 밖에 없다. 피해자냐, 가해자냐.

생존자와 같이 도모하고 제안할 것은?

이 _ 반성폭력 운동에서 상담은 운동의 주요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출발하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알려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잘못된 통념에도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다.

이임 _ 상담은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다. 다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내담자는 지금 당장이 시급하고 비밀에 부쳐야 하고, 우리는 그 원칙에 집중해서 사건을 지원한다. 그런데 내담자와 그 이상 뭔가 도모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A(에이) 말고 이를 넘어서는 A'(에이 다시)도 해야 하는데, A'(에이 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역량의 한계. 나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 _ 초기에 성폭력상담소를 찾아온 내담자는 그 단체의 동지였는데, 요즘에는 ‘소비자’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었으니까 소비자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소비자로 머물게 한 우리 운동의 한계를 보아야 한다. “치료비 300만원 드립니다. 법률 연계해 드립니다. 끝까지 지원합니다. 경찰동행합니다.” 이런 제도적 상품, 즉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건데, 이것 말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다. 제도화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했다.

서비스가 아닌, 여성운동으로서의 상담 현장

배 _ 우리가 스스로 필요한 시점에서 점검하고 방향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화의 여파인 것 같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제도화 되면서 반성폭력운동의 상담을 서비스화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라, 제도 만들어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성운동가가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제도화고.

문채 _ 지금은 제도화를 넘어서는, 운동을 확장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상담소가 실적(상담 건수가 실적)에 치우쳐 있는데, 내용이 풍부한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법과 제도적인 틀 안에 들어오기 힘든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다. 반성폭력운동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태어났는데, 처음 출발할 때의 미션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작동하고 있는 흐름 같은 것들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배 _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못 찾는 것이, 이슈화의 키를 언론에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면 새로운 사례와 이슈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키 자체가 없다. 성폭력 이슈는 언론의 매뉴얼대로 가고 있다.

이 _ 운동을 하면서 언론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슈를 잘 제기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뭘까? 제도 안에서 용기있게 목소리를 못 낸 것, 또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을까봐 실제로 눈치 보기 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

배 _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왜 변해야 하는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작업을 아직 못 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전술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면 국민적 합의도 이룰 수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문화와 인식의 빈 곳을 어떻게 공략할까

이 _ 문화를 바꾸고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가치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리 활동의 방점이 되어야겠다는 것으로 우리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배 _ 성폭력운동에서 피해자중심주의 이야기하는데, 장애인 운동에서 말하는 당사자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당사자의 감수성과 입장이 경청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사자주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당사자 말이 정당'이라는 식으로 왜곡되면서 폐해도 낳고 있다. 당사자주의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결과. 그래서 A'를 못하고, A에만 머물게 된다. 피해자중심주의도 자칫 왜곡된 당사자주의의 문제점에 봉착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임 _ 그래서 민우회는 피해자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관점이라는 말을 쓴다.

배 _ 우리가 20년 간 만들어낸 용어, 단어를 점검해야 한다. 초기에는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가해, 피해, 2차 가해·피해, 피해자, 가해자라는 용어도. 반성폭력운동, 성적자기결정권, 성교육, 성 권력, 젠더 권력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해야 한다.

이임 _ 사람들은 성폭력을 법적인 용어로만 알고 있다. 일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아니라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서, 학문적인 말 말고, 일상적이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단어를 발굴해내고 설명해야 한다.

동지들의 마무리 발언

배 _ 장애인 운동도 복지 수혜자 패러다임에서 당사자들이 자기 권익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수 십 년이 걸렸다. 여성운동도, 반성폭력 운동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고착화되었는데,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임 _ 한계를 짚었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말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채 _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좌담회 자리에 소심한 사람이 왔는데, 대담한 이야기를 했다. 나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운동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여

러 가지 사안들-무고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문제 등-에 좀 더 천착해야 시
점이라고 본다.

이 _ 바쁜데도 이렇게 좌담회에 참석해준 동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가감없고 검열 없는 말씀에 더욱 감사하다. 나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
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 오늘이 자
리가 용기있게 주저없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동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리 : 가온(회원)

가온의 소회

“성폭력이 칼때기냐”, “그거 성폭력 아니잖아요”, “가해자도 인권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큼니다. ‘거봐라, 그거 성폭력 아니지 않느냐’는 가
해자 옹호에 쓰이기 쉽지요. 하지만 반성폭력운동에 10년, 20년을 헌신하고 있는
그녀들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
려면 20년은 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아니라 동지가 필요하다는 것, 동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 눈치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새기겠습니다.

2

쟁점과 입장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는 정부, 이제는 예산투쟁이다
인권위,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어……

대안읽기

피해자 리더십, 살아움직이는 피해자의 힘을 말한다

프리즘 [가족이라는 장막 걷어내기]

‘정상가족(the Family)’을 둘러싼 허구와 현실

판결 사례로 보는 친족성폭력과 가족

예측할 수 없었던 내 ‘엄마’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뜻있는 ‘귀가’

통계 이야기

여성가족부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정부 부처가 제안하는 성폭력 예방법, 이대로 지키면 돼?

성문화 읽기

TV를 보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다



예산을 어디에 써야할지도 모르는 정부, 이제는 예산투쟁이다

이윤상 | 본 상담소 소장

지난 3월 9일, 여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또는 미처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사무실에 찾아온 기자들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것을 들으며 현장의 문제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했다.

피해자 지원예산은 부족한데,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때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답을 들을 때마다 ‘국가 살림’도 어려움이 많겠지,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겠지, 믿었다. 하지만, 작년 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전달받으면서 ‘아차!’했다. 정부와 현장이 진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여겼던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 깨달았다.

그간의 경과를 이렇다. 매 3년마다 있는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가 2010년도에도 실시되었고, 정부는 평가결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통보해왔다. 폭력피해자 지원실적을 놓고 경쟁시키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니! 뜻을 함께 하는 80여 개의 단체들은 지난 1월 6일, 인센티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단체들 중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들은 이를 반납했다.

피해자지원예산 규모를 한번 들여다보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 거주하는 생활인에게 지급되는 식비는 1인 당 하루 4천3백 원 남짓.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식비다. 한 달 의류비는 1만 2천 원 정도로, 우리 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만해도 이 돈으로는 20~30만 원 하는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 2010년도 기준으로 정부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1년에 5천900여만 원, 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6천여만 원이었다. 이 운영비는 2~3인의 인건비(80%)와 관리비(공과금, 통신비 등 20%)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포함된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월급이 얼마일지 대략 짐작이 된다. 운영비는 2002년과 비교했을 때 600여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1년에 75만 원 꼴로 인상된 셈이다. 작년에는 공과금이나 물가 인상률은 아예 잊었는지, 30만 원(0.5%)을 인상했다고 하여 현장에서는 차라리 향의의 표시로 그 돈을 반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번 인센티브 사태로 현장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자,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 운영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너무나 열악한 재정 상태에 시달리는 일선 현장에서 3년에 한 번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떻게 시설 운영을 선진화하며 서비스 수

준을 높인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힘들게 후원자를 조직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어렵사리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해오던 활동가에게 ‘인센티브 탈락 기관’이라는 박탈감이 사기 진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의 철학 부재가 낳은 결과

현장의 오랜 요구 끝에 쉼터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때문에 쉼터에서 지내던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란 자립을 넘어 기본적인 생존 문제다. 다른 쉼터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금을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해 마련된 쉼터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하여 어렵게 개정된 법률에 환호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퇴소자립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한다.

작년까지 쉼터 생활인에게 지급하던 직업훈련비도 올해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 이제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나 실업자에게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비용을 생활인들이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 열림터에 입소한 10대 청소년들은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데, 아직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이 직업훈련비 일부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정부는 항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며 각종 대책을 발표하곤 하지만, 정작 하던 지원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일선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를 것이다.

이쯤 되면 현장 활동가들이 인센티브 지급에 왜 이렇게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예산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라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모 기자와 나눈 이야기에서 “현장의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인센티브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잘 모르는 외부인이 하는 말이라면 모를까,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책임자가 한 말이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정책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이 국가의 책무인 이유나 해당 지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향에 대해 현 정부가 답변을 가지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걸 제대로 대담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인센티브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예산은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더 이상 잘못된 예산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올바른 예산정책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적어도 정부가 국가지원금 외에 자부담(후원금 등) 비율이나 연계실적 건수와 같은 평가지표로 평가한 결과를 놓고 실적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 아니 최소한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인센티브가 먼저일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할 때까지,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곧은 반성폭력 정책이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인권위,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어……

성차별 담당 조사관을 해고한 인권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바닥을 쳤다’는 말이 있다. 바닥을 쳤다고 지칭하는 대상이 그만큼 가치나 상태가 하락해 최하위에 위치했다는 뜻이다. 작년에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모습을 보고 ‘바닥을 치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이젠 그 말도 하기 민망하다. ‘바닥을 쳤다’는 말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니까. 국가인권기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1960년대부터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마련을 연구하면서 나온 방안으로, 1991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수립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되면서 각국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정부가 인권증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그렇다보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는 등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독립성 훼손’이 계속되었다. 2009년 인권위 조직을 21% 축소하여 인권위를 압박하고, 인권위법 상의 인권 관련 경험이 없는 인권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임명하였다. 그는 정부 눈치만 보는 결정을 속속 하였다. 인권위는 ‘PD 수첩 제작진 처벌과 소송도 인권침해가 아니다’,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도 인권침해가 아니다’ 심지어 ‘기무사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도 사건 발생일이 1년이 지나서 못 한다’는 결정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작년 11월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동반 사퇴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여성시민단체들까지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현병철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운동을 두 달간 전개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며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더 비민주적이고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는 커녕 땅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설 전날인 1월 말, 9년을 근무하고 성차별 분야 조사관으로 성실하게 활동했던 강인영 조사관을 계약연장 불가라는 방식으로 해고한 일이다. 그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은 3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해왔던 관례를 깨면서도 이렇다 할 사유도 말하지 않았다.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강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부지부장이다. 노조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이후 일어난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노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현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모으는 일을 했다. 눈엍가시였을 것이다. 그래도 해도 너무나 일이다. 아무리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 정부에 날 서게 대응하지 않을 사람들을 줄 세우려는 의도라고 해도 최소한의 도가 있다. 10년째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이루어온 역량이 인권위의 소중한 성과임에도 이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성차별 조

사관으로 배정받은 5인중에 유일하게 성차별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시 강조사관밖에 없는데 그저 노조활동을 하며 ‘위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는 딱지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도를 넘은 일이다.

알다시피 인권감수성, 성차별 감수성 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노력과 경험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기에, 이를 게을리 하면 언젠가 개인이든 조직이든 후퇴할 수 있다. 2008년, 인권위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벌어진 성차별과 성폭력, 인권침해에 대해서 내린 결정을 보면서 필자는 이를 충분히 느꼈다.

2008년 촛불이 한창인 8월, 서울의 한 경찰서. “자살 위험이 있으니 브래지어를 벗어주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한 여성이 받은 여경의 요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원래 유치장은 그런가?’ 하고 요구에 따랐다. 다음날 면회 온 친구에게 물어보니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후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여성단체들이 규탄기자회견을 열었고, 인권위에 진정도 했다. 형기가 확정돼 수감되는 교도소에서도 브래지어를 탈의요구를 하지 않는데 하물며 조사를 받느라 길어야 48시간만 구금되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기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왜냐면 2004년 경찰서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알몸수색한 일이 사회화되자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알몸수색 시정권고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니까.

그런데 이는 헛된 기대였다. 인권위에서 나온 최종 결정은 ‘속옷 탈의는

성폭력이 아니’고 후속조치가 부족했을 뿐이란다. 자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탈의는 유지하되 다만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조끼를 비치하라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가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한 자료를 받아보니 경찰서측이 제출한, 해외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권고한 사례만을 받아서 참고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가 찾은 다른 해외사례에서는 이러한 속옷 탈의 명령이 인권침해라는 손해배상을 판결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조사관은 직접 찾아보지도 않고, 인권단체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사를 한 것이다.

2005년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구)여성부에서 담당해 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인권위로 통합되었기에 우리사회의 성폭력, 성차별 근절에서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 크다. 2009년 차별행위 상담건수 1,974건 중 453건(23.0%)이 성희롱·성차별 사건으로, 이는 장애 관련 상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황당한 인권위 결정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인권위의 성차별 조사업무가 더 강화되어야 하고, 그 바탕을 책임질 9년을 쌓아온 성차별 전문 인력을 내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작년 8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철도공사가 실질사용자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역 천막농성에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연도별 접수 현황 (2010. 5. 31. 현재) 단위: 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월)	계
계	13	50	29	118	144	230	205	270	127	1,186
성차별	12	48	28	58	37	65	56	100	46	450
성희롱	1	2	1	60	107	165	149	170	81	736

피해자 리더십, 살아 움직이는 피해자의 힘을 말한다

당고 | 본 상담소 회원

피해자 리더십, 낯설고도 익숙한

글로벌 리더십, 파워 리더십, 소셜 리더십……. 각종 리더십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새롭게 제안하는 리더십은 ‘피해자 리더십’이다. 피해자 리더십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순간 어쩐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라는 리더십의 사전적 의미와 수동적이거나 나약하다고만 여겨지는 피해자의 이미지가 상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리더십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나면, 이 낯선 단어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익숙한 경험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피해자 리더십’은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피해 경험자가 ‘독립적·주체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힘을 말한다. 피해생존자의 주체성, 독립성, 역량 강화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떠오

서 45미터 고공철타농성까지 안 해본 게 없는 장기투쟁을 했던 그녀들도 투쟁 당시인 2006년, 인권위에 진정해 의미 있는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KTX 승무원 자격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관련 직제를 분리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열차승무원 중 고객서비스 업무만을 분리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규정”해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킨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설계하고 철도유통은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등 불법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과 성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녀들은 여성이어서, 파견노동자여서 임금,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일반 열차 승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았을 뿐 아니라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가 비정규직 차별과 성차별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과 다르게 인권위에서 일하는 계약직 조사관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 이제 인권위는 인권과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잃은 것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비상식적 결정이나 권고나 조치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인권위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인권위가 우리사회에 가지는 권위를 생각할 때, 이러한 후퇴하는 결정이나 엉터리 조사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 성평등 인식은 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성차별은 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미워도, 보기 싫어도 많은 여성단체, 인권단체들이 인권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개입하는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

른 용어로, 가부장제 사회가 흔히 가지는 오해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엘리자베스 제인웨이는 『약한 자의 권력』에서 약한 자가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력의 형태 중 하나는 ‘자신에 관한 정의를 권력자가 강요하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¹ 20년 동안 성폭력 피해생존자, 사건지원자, 상담원, 반성폭력 운동 활동가들과 함께한 상담소가 목격한 것은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가진 엄청난 생존력이었으며, 그 힘이 불리일으킨 크고 작은 활약들이었다. 그런 활약을 가능하게 만든 주체적이고 성찰적이며 창조적인 힘이 바로 피해자 리더십이다. 성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험자로서의 피해자, 자기가 겪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피해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 해결 지도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한계를 점검하는 피해자, 자신이 겪은 폭력을 통해 사회를 성찰하고 변혁하는 힘을 가진 피해자가 내뿜는 강렬한 힘 말이다.

우리에게 피해자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수사를 하는 경찰도,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사건 지원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수많은 사건 지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가진 가족이나 대리인,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상담자 사이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는 설 곳을 잃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또는 내지 않는 방식의 사건 해결은 그만큼 무의미하며 이후 피해자의 치유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체 과정을 파악하고 피해자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체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한 가지 유형으로 정형화된 피해자 리더십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그 안에는 개별 피해자의 다양한 리더십이 숨어 있다. 사회에도 다양한 리더가 존재하듯이, 피해자 중에도 자신의 목표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호소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피해자, 자신이 가진 자원을 영리하게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피해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매스미디어에서 흔히 등장하는 ‘무력한’ 피해자조차 자신의 사건 안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것은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피해자상에 갇히지 말고 나만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성폭력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피해자 리더십을 익히고 버릴 액션 플랜을 찾아서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으로 키워지다 보면 ‘리더’로 활약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당연히 리더십을 준비하고 훈련하여 몸과 마음에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리라. 그러나 선불리 좌절부터 할 필요는 없다. 현재 자신에게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훈련하면 충분히 익히고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리더십은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성폭력 사건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 해결 지도를 그리는 것을 생각해 보자. 성폭력 사건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 지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해결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며, 원하는 목표와 한계를 설

1) 벨 훅스, 『페미니즘: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티브북, 2010, 151쪽에서 재인용.

{ '가족'이라는 장막을 걷어내기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으로서의 결혼, 사랑의 결실인 아이, 그리고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 우리는 TV 드라마에 주로 등장하는 가정을 보면서 “저런 집이 어딴!”라고 외치고, 어디 모임이라도 가서 서로 보듬으며 아껴주는 부부와 그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 집은 왜 이래?”라며 투덜댄다. TV 속 가정의 모습이 미화된 것임을 알면서도, 친구 가족의 화목함 속에도 갈등이 존재할 것임을 어렵듯이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과 그들을 비교하며 박탈감과 부러움, 때로는 우울감을 맛보고는 한다.

아버지-어머니-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the Family)이라는 신화는 위와 같이 화목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족상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갈망하게 한다. 한 동네에 살며 매일 한바탕 수다를 떨어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배우자의 폭력이나 미성년자인 딸의 임신, 알콜 중독, 파산 직전의 통장 잔고, 서명만이 남은 이혼 서류와 같은 비밀이 기다리는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은 이러한 정상가족 신화의 장막을 블랙 코미디로 드러내기도 한다.

‘비명은 질려도 현관 밖으로는 새어나가면 안 된다’던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협박은 언제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가정 내의 폭력이 더 이상 집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날, 친족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상담소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까.

정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 리더십을 한층 더 성숙시킬 수도 있다.

끝이 아닌 시작을 위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피해자 리더십에 대한 그간의 고민을 담아『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를 출간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전략은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라도 나일 수밖에 없으므로, 인생에서 일어난 일 중 하나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주인공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피해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인 목표를 선택하여 주변 자원과 지지 체계를 활용한다면, 성폭력 사건을 맨 처음 원했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을 과연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큰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마냥 흡족하기만 할까. 피해자 리더십은 성폭력 사건의 표면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그 후 계속되는 피해자의 삶과 치유의 여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성폭력 사건 전후로 다져진 피해자 리더십은 피해생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피해자 리더십으로 충만한 피해생존자들이 예리하고 멋진 전략으로 이 단어의 빈 곳을 속속들이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

친족성폭력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과 '가족'으로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등장한다. 끝까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가해자의 말을 믿거나 서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가족들, 피해자인 자녀를 방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피해자의 부양을 회피하는 친척들,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견디거나 가해자와 타협해야 했던 피해자, 쉼터 퇴소 후 다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 이렇듯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만나다보면 '어떻게 가족이 되어서는 저럴 수가 있느냐'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서로의 관계와 욕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가족이라도 지내온 세월만큼 구성원에 대한 애증과 함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번 <프리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장막을 걷어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주은의 글을 통해 '정상가족(the Family)'을 둘러싼 허구와 현실을 짚어보며 독자가 위치한 지금/여기를 돌아본다. 그리고 바로 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현장을 기막히게 한 친족성폭력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정정희의 글에서는 친족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여성의 복잡한 심경에 대해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떠한 욕구로 가해자가 있는 가족-집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어진의 글이 마련되어 있다. 행복과 안정의 담보로 여겨지는 '가족'의 장막을 걷어내고 거미줄마냥 진득하고 촘촘하게 얽혀있는 구성원의 관계망을 헤쳐보자.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위태롭게 유지되는 '가족'의 막강함을 직시한다면 친족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각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반응과 대처에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가족과 함께, 가족 안에서 행복해야만 '정상'이라 여겨지는 사회에서 말이다.

‘정상가족(the Family)’을 둘러싼 허구와 현실

조주은 | 여성학 박사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쓸까, 말까?”,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지?”

학기 초가 되었다. 여느 때와 다를없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간 내게 아이들은 묵직한 가정통신문을 들이민다. 나의 마음은 착잡함과 갈등에 휩싸인다. ‘부/모’라고 인쇄되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가정환경 조사서를 보고난 후의 나의 심정이다.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 밑에 한 칸이 비어있지 않고 빼곡히 채워져 있다는 이유로 학생을 둘러싼 가정의 정상성을 확인할 학교의 무지몽매함에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양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가족을 대표하는 가족형태이며 정상성을 획득한다”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에 가장 뿌리깊이 박혀있는 이념체계이다. 정상가족(the Family) 이데올로기를 뒤에서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것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모성이데올로기다. 핵가족의 정상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아버지, 자녀를 보살피는 어머니라는 성역할에 충실한 부모의 존

재. 또 하나는 어머니는 성모마리아처럼 섹스하지 않고 남성과 손만 잡고 자도 임신이 되는 무성적(無性的)인 존재,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라는 모성이데올로기(motherhood)다. 이처럼 핵가족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덧칠해져 가족의 모든 형태 중에서 최고 권위를 누리며 권좌에 앉아있다. 사랑이 샘솟는 핵가족의 이미지는 가족을 벗어난 바깥세상의 약육강식, 살벌함과 대비될 때 더욱 극적으로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 하다.

사랑의 완성은 결혼?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혼인으로 마무리되는 두 남녀의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고 혼인까지 이르지 못한 사랑은 ‘깨진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의미된다. 정상가족(the Family)으로 의미되는 핵가족의 시작은 혼인에서 시작되고, 그 혼인은 사랑과 결합될 때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랑과 결혼은 분리된 개념이었고 여성에게 성(sexuality)이 쾌락과 연결되게 된 계기로서 피임기술이 발전한 것도 채 100년을 넘지 않았다. 지배계급의 혼인은 두 가문 간의 결합으로 영속성을 보장받는 정략결혼의 성격을 띠거나, 자식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었다. 사생아(私生兒), 즉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지칭하는 영단어가 러브 차일드(Love Child)라는 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사랑은 결혼제도 밖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애-두 사람사이에서 생겨나는 사랑, 공감, 친밀함이라는 감정은 개별적이고 사적인 것이다. 이것들은 근대 가족, 즉 이성애 파트너와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 등장的主要 배경이 된다. 더불어 사랑이라는 감정은 두 남녀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감정을 설명하기에 이른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유아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자식 여섯, 일곱 낳으면 한

두 명 건지기도 힘들 때, 자식의 탄생은 죽음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진 사건이었다. 너무 빈곤한 집에서는 어린 자식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

18세기에 들어 유아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술친구이자 노동을 함께하며 음담패설을 나누기도 하던 (체구가) 작은 어른, 즉 어린아이는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천사로 등극하였다. 깨지기 쉬운 아동에게 섬세한 보살핌을 주어야 할 일차적인 주체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되었다. 이처럼 (사실은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죄의식을 갖도록 하는) 모성본능으로까지 이야기되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maternal love)과 남녀 파트너 사이의 애정(affection)이라는 감정은 근대 핵가족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이다.

근대 핵가족에 남겨진 남녀역할

근대 이후 산업자본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은 자식 사랑과 배우자 간 애정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정적 연대체를 의미한다. 공/사 이분법 논리에 의하여 사회는 공적인 곳, 가족은 사적인 곳으로 이해된다. 가족은 냉혹한 공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가정은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체계에서 피 흘리고 돌아온 전사(戰士)들이 따뜻하게 위로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곳, 부도덕과 기만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상처받은 남성들을 도덕적으로 구원해줄 수 있는 곳으로까지 등극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중심성(domesticity)이 팽배한 근대 가족에서 애정이 뽕뽕 솟아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가 놓여있다. 서로 다른 남녀, 양극의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남녀, 다른 역할(남성=경제적 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을 하는 남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다하는 가족이다. 역사적으로 18세기 들어 남녀의 해부학적인 차이가 극적으로 강조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근대의 핵가족이 정상가족(the Family)이고 한 부모가족이 비정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가족(the broken family)이라고 불리우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남녀’간 ‘역할 분업’이다. 다른 기질(여성성/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이성애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에는 각각의 성이 담당하는 생계부양, 가족 사랑으로 채색된 가사노동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결손가족’이라는 낙인의 내용은 한 가지 기능이 빠졌다는, 역할 부재에 있다. 어느새 근대 핵가족의 전제였던 남녀간,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역할로 전이되어 간다.

남성성의 핵심이 된 경제적 부양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고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은 밥상 차리고 집안 치우기, 자녀양육이라는 구체적인 역할로 바뀌어 간다. 남편에게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식탁에 꽃병을 두지만 남편의 시장기를 채워줄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부인,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라며 일터로 나가지 않는 남성은 징글징글한 진절머리의 대상이 된다. 사랑한다면 증거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남성은 일터로, 여성은 부엌으로.

폭력과 성별분업을 재생산하는 공장인 정상가족(the Family)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가족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자연화된 관계(naturalized relationship)처럼 느껴지는 것, 의식하는 못하는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 같은 것이어서 굳이 “나는 이런 공기를 숨쉬고 있다”고 밝힐 필요도, 분석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어쩔 때는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내 가족은 소위 ‘콩가루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가족은 애정공동체, 거친 세상의 안식처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생을 마칠 때까지 치유해야 할 내면의 상처를 가

족에서 받은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핵가족에서 성장하지 않으면서 받은 상처는 가족 내부에서 온 것이기보다는 사회의 편견과 사회안전망 부재에서 받은 것이다. 가족이 거친 세상의 안식처이기는커녕 가족 자체가 거친 세상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특정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이 가족형태(정상가족이나 아니냐), 성적 지향(이성애자나 성 소수자이냐)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 관계지향적인 성격인 사람이 이성애자라면 ‘인간성이 좋다’라고 평가되지만 성 소수자라고 밝혀지면 ‘어쩐지 좀 오버하더라’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내성적인 아이가 정상가족의 구성원이면 ‘정서가 안정되어 침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것으로 밝혀지면 ‘어쩐지 기가 죽었다’로 회자된다.

정상/비정상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하고 차이,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성향이 개성으로서 인정되기 힘들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다. 존중까지도 안 간다. 사람들은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런 가족에서 자란 아이가 가장 성숙한 인격을 지녔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가족은 소위 ‘정상가족’이다. 때리는 남성, 맞는 여성이 있는 가족이 가장 폭력적이라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이 가장 폭력적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폭력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성애 핵가족은 성별 분업을 유지·재생산해나가는 공장이다.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0%에 이르고 소위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을 모두 전담하며 악전고투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2009)에 따르면, 맞벌이 가족의 남편(24분)과 비맞벌이 가족의 남편(19분)은 가사노동

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 휴식처’라는 담론은 소수에게 그것도 매우 순간적으로 해당되거나 특정 성(性)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철용성으로서의 가족신화를 깨뜨려야 할 때

이처럼 신성불가침한 가족신화가 유포되어 있는 현실에서, 가족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그저 소위 잠시 정신 나간 ‘변태, 혹은 사이코 남성(아버지, 큰 아버지, 오빠, 삼촌 등)’에 의한, 신성한 가족을 모독하는 ‘일탈’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아동 성폭력”,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성(gendered) 폭력”, “장애인 차별”, “노인학대” 등의 담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호는커녕 차별·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폭력이 일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는 바로 우리사회가 그토록 신성해마지 않는 가족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족이 휴식처라기보다는 가족을 벗어나야 심을 얻고, 가족을 떠나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가부장제 사회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자로 의미되는 남성이 부재하는 가족, 즉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가족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여지는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을까?

판결 사례로 보는 친족성폭력과 가족

〈반성폭력〉 편집팀

사례 1

가해자인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신체장애가 되었고, 술주정과 폭력에 견디다 못해 피해자가 4세 때 어머니가 가출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복역하는 동안 피해자는 친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가해자는 출소해 초등학교생인 피해자를 데려갔고, 술심부름과 구타, 성폭력이 시작됐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임을 인지하고 거부했지만 폭력이 이어졌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만류하지는 못했다.

이후 사회복지사의 인지로 열림터 입소 후 고소를 진행하고 친권을 상실하게 하는 소송을 지원했다. 친할머니가 친권자가 되었으나 곧 돌아가셨고, 할머니 장례 때 만난 친가 친척들이 냉랭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고 느껴 열림터 원장이 보호자로서 친권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열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자료집 중〉

사례 2

지적장애 아동이 4명의 친족 일가로부터 8년 간 성폭력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장기간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며 ‘자신의 일차적인 지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하여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 대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신하여 그나마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그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2009년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결림돌 수상 사례 중)

사례 3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어머니가 가해자와의 딸을 출산하게 되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40만 원으로는 세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고, 죄에 대한 대가에 네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며 가해자의 항소심 법정을 찾아와 ‘남편’의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엄마로서 딸의 상처를 모르지 않고, 이미 딸에게 큰 죄를 지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며 다른 자녀에게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는 말과 함께 “딸아이는 엄마인 저보다 잘 극복했고,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출발하게 도

예측할 수 없었던 내 ‘엄마’

정정희 | 본 상담소 부설 심터 열림터 前 원장

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심형이 무겁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별적 고통을 생각해야 하고, 가해자의 처벌의사에 대해 피해자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이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강간한 이를 선처해달라는 이의 심정이 어떤지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에게 희망을 걸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해자에게는 현행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다.

〈“딸 성폭행 남편 선처 호소, 누가 이 엄마에 돌을...”, 2009년 1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사례 중〉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

친족성폭력피해자인 딸들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그 딸의 어머니는 어떻게?

‘가해자인 남편이나 아들에게 분노하고 딸을 끌어안고 위로하며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라며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를 위해 전사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일 때가 더 많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수능을 앞둔 아들이 충격 받을까봐 딸에게 오빠 시험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지내라고 하기도 하며, 공무원인 남편의 신분이 드러날까 심터에 들어온 딸을 억지로 시골 할머니에게 보내거나, 엄마나 동생들 살 걱정은 하지 않고 저만 생각한다며 아버지를 고소한 딸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오랫동안(성폭행을 성관계로 생각하므로) 비밀스런 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딸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면 “무슨 엄마가 저래.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남자랑 계속

산대? 미친 거 아니야? 친엄마 맞아?”라는 생각으로 인해 상담 진행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사례 1_ A의 어머니

화가 잔뜩 나서 입을 꼭 다물고 들어왔다.

“애 말을 다 믿으면 안돼요. 애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님이 문제라 그러고 집에서도 몰래 돈도 훔치고 지 아버지가 버릇 고친다고 때리고 그랬어요. 들락날락 가출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젠 지켜워요. 지 알아서 살겠지. 근데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여긴 누가 데리고 왔대요?”

사례 2_ B의 어머니

이혼한 남편이 키운 세 딸. 큰 딸이 가출하고 나서야 아이들의 피해를 알게 되었다. 아이들을 쉼터에 데려오고 친권도 가져오려 했지만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었다. 엄마도 마치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양 아이들에게 ‘엄마가 죄인이다’를 되뇌일 뿐이다.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은 것은 마음뿐 이미 재혼한 엄마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 아이들을 쉼터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 1년만 쉼터에 있으면 엄마가 데려가겠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사례 속의 어머니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보통의 어머니들이다. 상처 입은 딸에게는 미안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남편을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비는 남편에게 생기는 연민의 정이 지겹도록 싫어서, 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설마 설마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생길 줄이야. 이 모든 현실이 왜 내게 닥쳤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게 여겨져 어찌 할 바를 모를 뿐이다.

‘피해자의 엄마, 가해자의 아내’라는 혼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다가도 문득 딸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가만히 있었는가, 싫다고 했어야지, 엄마를 소리쳐 불렀어야지, 한두 번도 아니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편으로는 기를 쓰고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나, 제 정신이 아닐 때 생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설명하는 등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이유를 나열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

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일을 맞댄 힘없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부인, 회피, 체념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딸과 어머니는 서로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아마 서로 자기 괴로움이 너무 커서 상대방의 괴로움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서인 것 같다. 딸은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의 편도 되어주지 않는 엄마를 원망하느라 가해자인 아버지는 뒷전이다. 엄마는 새삼 딸의 행동과 태도를 감시하고 간섭하려 하며 복잡한 감정으로 대한다.

딸은 다만 성폭행을 겪었을 뿐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실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남편을 고소하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망설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이들 데리고 살 길도 막막하다. 더구나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더라도 하면 우리 식구들은 얼굴을 들고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뜻있는 ‘귀가’

이어진 | 본 상담소 상담인권국장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모두를 위해서는 딸이 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남편은 더 이상 딸에게 못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마 또 그럴라고? 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절대 용서도 하지 않고 바로 이혼하고 고소도 할 것이다.

어머니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지만 딸은 어머니의 태도에 절망하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만 깊어질 뿐이다.

반성한다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뻔뻔해 진다. — 성폭력가해자들은 유형을 막론하고 공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유혹에 빠뜨린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 어머니를 원망할 뿐 이미 깨진 가정을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 어머니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녀(母女)에게 절실한 화해

나는 성폭력피해의 경험보다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상처가 더 생생한 생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한 친족성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친족성폭력은 피해를 입은 딸의 잘못도, 딸의 피해를 알지 못한 어머니의 잘못도 아닌 가족의 신뢰를 이용한 아버지와 남편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어머니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슈퍼우먼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짐을 지고 살아 가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은 어머니와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 남편이 없어도 살아갈 있도록 지원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해자와 다시 살기를 결심하면서

나는 상담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친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였고, 가족 중 아빠 혹은 오빠로부터 오랜 시간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경험은 성폭력피해를 인지한 후 가족 중 엄마,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대로 방치되었으며, 가해자를 피해 도망 나왔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선택에는 경제력, 가족과의 관계망, 가족이테올로기와 같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실로 나는 충분히, 깊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들려준 ‘귀가’에 대한 속깊은 이야기는 나를 슬프게 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안쓰러움이었고, 대견함

1) 본 글은 필자의 2007. 「친족성폭력피해자의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 수정했다.

이었다.

친족성폭력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생활공간, 가족으로서의 관계맺음, 생존을 위한 자원조달 등과 같이 일상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성폭력피해 이후 태어나면서 자연스레 맺었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과의 관계, 의식주의 해결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도적적으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혼란스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가족과의 분리는 다른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평범한 삶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 본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평범한 삶을 희망 하면서도 남들처럼 살 수 없는 처지를 비교하고, 확인하고, 갈등하는 반복적인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족성폭력피해 이후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과 변화들을 전환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다시 살기를 결심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 : '보통 가정' 만들기

피해자A는 사회적으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성인이 되고, 경제력을 획득해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가족적인 가치나 정서적인 공백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시작한 사회생활은 학창시절의 연장이었고, 결혼과 같은 사회적 과업은 성인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A는 이와 같은 사회생활을 통해 개인에게 가정형편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이후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성폭력피해 이후 조각났던 가족관

계를 회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적 자립을 앞으로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절대적 조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와 다시 살기는 독립적 삶을 위한 발판으로서 활용가능한 자원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기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과 가족이라는 범주에 속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가해를 사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와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A가 원하는 제대로 된 삶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단초로서 기능하며, 정착한 가운데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심적 여유를 담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A에게 평범한 삶을 지향함은 기본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안정감 있는 정서적 유대를 진작할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다른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차선

피해자B는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증명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성폭력피해 이후의 육체적·정신적 혼란을 정리해내기도 벅찬 상황이었지만 친밀한 관계의 가족들이 성폭력피해사실을 믿거나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가족의 대응은 친밀감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성폭력피해로 인한 심적 충격과 함께, 수 십 년간 관계를 맺어온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가져왔다. 피해자 본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고, 명백한 강제적 폭력이었던 친족성폭력피해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함은 오히려 피해자를 가정파탄의 가해자로 만들었고, 가해자로부터 재(再)피해를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가해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구체적 법적 제재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을 삼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있어 제재의 위협은 재(再)가해를 차단하고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와 다시 살기는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이라는 의미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온 가해자 이외의 엄마,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찾고자 하는 시도였고, 가해자로부터 재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수단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즉 B에게 평범한 삶을 지향함은 친족성폭력피해자로서 가족 내 구성원으로부터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지지를 통해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도 피해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해자와 진정 쿨한 관계를 바라며

친족성폭력피해 이후 피해자의 삶은 개인 환경, 가족구성원의 대처, 사회적 신념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타인과 구별되게 했던 친족성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한 개인이 사회의 다수인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되고자 하는 노력은 자신을 부정하는 의미로만 볼 수는 없다. 자신의 친족성폭력 피해경험을 인정한 현재의 상황에서 가해자와 다시 살기를 선택하고, 가족적 가치에 대응해 나가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가족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을 처리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면적으로 보여지 듯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살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수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신적으로 변한 가해자, 여전히 모르는 척 하는 가해자,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 가해자를 통해 분노를 더 키우게 되기도 하고, 치유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해자와의 관계성은 존재했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수용하고, 정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에게 가까운 ‘아버지’라는 존재로부터의 성폭력피해는 생애 과정에서 충격적 사건이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가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늘어나면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운용해 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피해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말만 해도 눈물 나는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대처하고 처리해 나가야 할 사건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가해자와 다시 살기는 피해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화해’와 같은 결과적인 의미가 아니며 앞으로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기도 하다. 친족성폭력피해를 경험했던 아이들은 가해자와 다시 살거나, 다시 살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해자를 떠나기도 했고, 가해자와의 아슬아슬한 감정적 줄타기가 괴로워 다시 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는 아이들이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과연 자발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아이들이 꿈꾸는 가해자와의 쿨한 관계, 가해자에게 아쉬울 것 없는 현실을 이 사회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다시 아이들에게 ‘가해자와 다시 살 것인지’를 질문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부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 대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국단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유형별(8개)로 나누어 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했으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운동부내 여성선수를 성폭력 취약집단 대상으로 조사했다. 또한 여기에는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 및 성폭력 관련 사법기관에 대한 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 경향 : 현실과 여전한 통념 사이의 간극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성폭력피해 성인여성의 경우에는 35세 미만, 취업한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간·강간미수 피해경험이 1천 명당 5.1명으로 2007년도의 2.2명보다 높아졌고, 강간·강간미수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율도 12.3%로 2007년도의 7.1%보다 높아졌다. 강간 가해자의 경우도 평소 아

는 사람(면식범) 비율이 81.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들의 35.6%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가해자 행위 중심의 유형화, 피해자 경험 반영 못해 2007년과 2010년도 실태조사에서 성폭력유형은 성기 혹은 몸의 접촉여부에 따라 강간, 강간미수, 심각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 성기노출, 스토킹으로 나누고 있다. 이 분류는 가해자의 행위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척도로 삼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경험에 대한 상황과 판단에 대해선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상담현장에서는 피해자 상담을 하다보면 가해행위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당시의 상황, 피해경험에 대한 자신의 인권침해정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담하고 있다. 그래서 가해자의 행위 정도에 따른 강간, 강간미수 등에 대한 수치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 강간·강간미수 등에 대한 수치만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행위강도로 순위 매기는 방식은 피해자의 경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통념의 한계 강간·강간미수를 제외한 피해율을 살펴보면, 성인여성의 경우에 2007년도에는 10%, 2010년도에는 38.6%로 강간·강간미수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이는 성기 중심적인 강간피해만을 보호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관련법의 경향과 비추어 볼 때 시사적이다. 일상에서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사소한 일’ 혹은 ‘특정한 개인의 사적인 일’로 취급되는 현실의 반증일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 가해자의 관계, 대다수가 아는 관계 성폭력피해유형 중 ‘음란

전화 등은 가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제외한 7가지 가해자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는 사람이나 가족 및 친척이 81.2%로 상당히 높다. 이는 그간 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 (성폭력가해자는 싸이코패스다라는 등의) 성폭력 통념을 비판하면서 주장해온 바, 성폭력은 피해자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취약집단, 실태조사 부터 섬세한 접근 필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운동부내 여성선수를 취약집단으로 정하여 조사를 했고, 그 실태의 심각성 혹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아동·청소년(만 10~18세)의 경우 지난 1년 간 전체 피해율은 38.3%, 평생 동안 경험한 성폭력 피해율은 41.1%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41.7%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급생이나 선후배라고 답변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은 우울감, 공격성 증가, 자아존중감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피해 당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나 가해자 처벌 등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아동성폭력이 이슈화되면서 성인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맥락에서 비교적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실시 중인 성교육 혹은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실태조사에서는 교육내용과 수용정도, 소통방식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대안이나 사회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조사는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관 종사자가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정신상 장애인이 신체상 장애인에 비해 피해율이 높았고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성폭력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의 조사방식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신상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나 설문이해도에 따라 답변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와 주변상황, 장애정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이번 조사에 포함된 강간, 성추행, 성적대화, 스토킹, 성희롱 등에 대한 개념과 인식 정도에 대한 질문의 경우, 조사자가 어떤 언어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답변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성폭력은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설문조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방식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운동부 내 여성 선수 성폭력 운동부내 여성선수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가벼운 성추행(15.9%)과 성희롱(33.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동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외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20.6%가 코치(감독)라는 점은 피해상황을 외부로 알려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일 것임을 짐작케 한다. 관계와 상황 상 여성선수들이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마련에 영향을 미치도록 향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방향정립 노력이 절실

이밖에도 성폭력피해자 조사,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 조사, 성폭력 관련

사법기관 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도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물적기반, 종사자 환경, 연계 및 네트워크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및 확충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특히 지원시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의견의 결과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 반대 의견의 경우 성폭력상담소가 32.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57.1%, 원스탑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가 40.9%로 인센티브 지급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 등)은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운 물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국가가 더 좋은 피해자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단체 간 경쟁을 부추기만 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지급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많은 피해자지원시설이 반대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철회하고, 실제로 현장이 겪는 어려움들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관련 사법기관 조사에서는 경찰은 설문조사로, 검찰과 판사에게 인터뷰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목할 부분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부분에서 성폭력 사건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례가 89.7%이고, 피해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7.8%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의 성폭력 인식 부분에서도 신체접촉이 없는 성폭력 유형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제도적 변화로 요구하는 부분은 외부전문가 활용(2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2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에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성폭력 관련법의 구성요건에 맞게 사건

구성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한 반면, 성인식 교육이나 인식 교육의 기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조사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에서 드러나듯 외부전문가의 개입 폭을 넓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의 간소화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구성과 일상적인 인식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판사의 인터뷰 결과에서는 전담부서의 역할한계와 인식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한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수사과 사법체계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선 수사재판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한 지점일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피해자 보호 및 지원, 2)가해자 재범방지 및 처벌강화, 3)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사법체계 개선, 5)예방으로 5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의 주된 흐름은 제도화된 시스템의 강화와 가해자 처벌강화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권리향상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와 제도정비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사회적으로 성인식 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꿀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해나가면서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곳곳에 만연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또한 성폭력 관련 실태가 단순히 수치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만큼,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식에 대

정부 부처가 제안하는 성폭력 예방법, 이대로 지키면 돼?

유감스러운 통계 활용의 예, '법무부의 성폭력 예방 십계명'

토리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통계를 만들기 & 통계를 활용하기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설득이나 다수의 지지라면 충분할까. 이런 예는 어떤 까. '30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다룬 뉴스에 (논조는 차치하고라도) '왜 이런 걸 보도하지?', '정말 이렇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 집단의 의견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처럼 비춰지는 이러한 사례들은 낯설지 않다. 이처럼 일부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정보들이 모두가 공유할 만한 가치로써 기사화되는 것은 설문조사와 같은 '통계'에 부여되는 '객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의견이고 부분적인 관점의 사실이며, 어떤 사안을 깊이 있게 바라보기엔 부족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적인 정보들이 있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정보의 선

해 보다 섬세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적한대로 피해여성의 경험과 언어를 반영할 수 있는 성폭력 유형화 등의 항목 추가, 정신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식에 대한 고민,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교육의 질적 부분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세부적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아가 일상적 관계에서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법적 처벌 강화나 피해자 '보호'보다 넓은 범위의 반성폭력 정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언론을 통해 처벌 강화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 묻힐 수밖에 없다. 일상적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의 시각으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려는 정책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피해여성들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목소리 낼 힘을 얻을 것이다.

택과 가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개인의 견해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최근 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통계를 근거로 법무부가 공개한 ‘성폭력 예방 10계명’은 이런 점에서 많은 질문거리를 안겨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정부부처가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시민들을 위해 친절하게 준비한 성폭력 예방 10계명의 내용은 그대로 신뢰하기에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통계, 무엇을 보여주려 하나

법무부는 지난 2월 17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매거진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는 10계명’을 발표했다.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자료는 서울 서부지방법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을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앞선 2월 13일, 서울 서부지방법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0년 한 해 동안 서부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596건 중 기소된 110건(18.4%)을 바탕으로 성폭력의 사건발생 시간, 계절, 가해자 연령 및 직업 등에서 가장 높게 집계된 내용을 추려 ‘성폭력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으로 분석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법무부가 발표한 ‘일반 성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방법’은 **‘늦봄에서 여름 사이의 야간을 주의하라, 성폭력 범치는 장소를 불문한다, 아는 사람 보다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음료를 무심코 받아 마시지 마라, 주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라, 30대를 조심하라’**이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예방 방법은 **‘낮 시간을 주의하라, 아는 사람을 조심하라, 선물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초범자가 많은 점에 주목하라’**이다. 십계명의 내용을 읽다보니 ‘낮선 밤거리에 짝고 얇은 옷을 입고 가던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의해 발생한다’와 같이 성폭력에 따라 붙는 막연한 추측성 잔상들이 떠오른다. 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 유발’

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은 10% 안팎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기소된 사건들만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성폭력 발생 맥락이라기보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열 가지 유형과는 다른 유형의 성폭력으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왜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행동했느냐’는 검찰의 편견 섞인 심문과 ‘2차 가해’를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러한 유형의 성폭력이 기소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아동인 경우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의 연령대와 직업 역시 해당 유형의 사람들에게 과잉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성폭력 사건 재판 시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사회적 지위, 가족부양 여부등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일용직, 무직이 가해자의 주요 직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더욱 의구심을 낳는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나 동종 전과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고의성이 충분히 짐작되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에 쉽게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고소되지 않는 성폭력 사건을 포함하는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는 법무부의 발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부지검 통계상으로 성인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66.3%), 어린이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68.4%)고 나타나지만, 상담소의 통계에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84.8%가 아는 사람이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다르다. 또한 성폭력의 발생에서 가해자의 직업을 특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약물등을 이용한 계획적인 성폭력 역시 상담 빈도가 낮다. 검찰청은 통계 발표의 목적을 시민들의 성폭력 예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누가 성폭력 피해를 입는가'하는 정보들은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공포심만을 자극할지 모른다. 이처럼 고소되지 않는 성폭력의 맥락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유형화된 성폭력'에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다면, 성폭력의 발생 원인으로써 초점 맞춰져야 할 한국사회의 젠더 문제들은 점점 더 시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통계 항목 비교

분류	일치 항목			불일치 항목
	피해자연령	가해자연령	피해자 가해자 관계	
서울 서부지검	성인 혹은 13세 미만 아동	구체적 연령대	아는 관계 여부	장소, 계절, 시간대, 가해자 직업, 전과 유무, 특정 피해유형 (인터넷 경로, 약물)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인, 청소년 아동, 유아	성인, 청소년 아동, 유아	구체적 관계	피해자와 상담대리인 관계, 피해 유형별 분류, 피해자 지원 내용, 낙태 상담(기획 항목)

※ 서부지검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 항목 비교표이다. 통계의 항목 구성은 통계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을 만든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과 나이를 묻는 질문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라기보다 성폭력 가해자의 이상적인 상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아닐까.

성폭력이 증가하는 나라,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를 주목하라

그동안 성폭력상담소들이 주장해온 '성문화 바꾸기', '젠더의식의 변화'는 이러한 공식적 발표에서 삭제된 성폭력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 20년간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통계는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법과 조직 사회 안에서 호소하는 것이 힘들었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것은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해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이, 그리고 한국사회의 성별 구조가 '다른'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상담소가 상담내용을 토대로 통계를 발표해온 것은 한국사회 성폭력의 진실을 알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성폭력을 둘러싼 '상식의 틀'을 변화시키는 작업이었다. 이것은 반성폭력 운동이 법과 함께 하지만 법 외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소수자 운동'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해 움직이는 정부의 노력은 고맙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정말 유감이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수사기관의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이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폭력과 성에 대한 감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실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TV를 보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다.

길동 |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 마포FM(아성의 꽃다방) 활동가

2011년 대한민국 오달리스크

누구나 한번쯤 고전주의 화가 앵그르가 그린 <그랜드 오달리스크(Grande Odalisque)>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네모난 프레임 안에 햇빛은 여인이 S라인을 강조하며 누워있는 그림. 요염한 다리 모양과 반쯤 그늘진 얼굴은 묘한 신비함과 관능미를 드러낸다. 오달리스크는 터키 궁전 밀실에서 왕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하던 궁녀들을 뜻한다. 이 그림은 주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과거 초상화는 지금의 카메라를 대신했다. 여타의 그림들 역시 재미있는 볼거리로 지금의 미디어를 대신했을 것이다. 당시 초상화는 대단히 고액이었고 그 때문에 돈과 권력 있는 자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에 속했다. 이는 다른 그림 역시 마찬가지다. 회화는 대개 오랜 시간과 노고가 요구되었으므로 화가를 고용해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은 주로 권력자들이었다. 지금 우리들의 볼거리를 권력층이 지배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

다. 액자의 네모난 프레임이 지금은 TV스크린으로 바뀌었다. 그 안의 모델이 된 오달리스크는 누구일까?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Ingre : Grande Odalisque

지난 3월 연기자 이다해의 사진이 구설수에 올랐다. 여러 기사가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2011.03.01 매일신문] 이다해 드레스 굴욕 사진..
노란 드레스 앞트임 사이로 보이는 것은 무엇?

일부 기사들은 걷고 있는 두 다리 사이를 확대해 동그라미까지 그려주는 친절함을 베풀기도 했다. 이 같이 특정 여배우의 육체와 노출을 다룬 기사들은 인터넷 혹은 스포츠 신문 등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다.

[2011.03.25 뉴스엔] 김민희 아찔 뒤탈 '보일락 말락' 섹시해~
[2011.03.08 조선일보] 남규리, 아찔한 의상 속 '딱 걸린 패드'
[2011.01.31 서울신문] 홍수아, 아찔한 '노출 드레스' 사진 공개 '터질 듯한 볼륨폼매'

서울문화예술대상 레드카펫을 밟다 '굴욕사진'으로 화제가 된 이다해는 "배우이기 전에 여자"라며 이지메를 당한 기분이라는 트위터를 남겼다. 특히 "대박거리다 생각하며 친절하게도 한 여자의 치마 속 가랑이 사이를 확대시켜가며 화살표까지 만들어 넣는 분이나, 그것을 보고 깔깔거리며 재밋

어하고 뽀뽀로 생각했을.. 알지 못하는 어느 분들의 얼굴을 상상하면 악마보다 더 사악하고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남긴 글은 가해자의 시선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되새기게 한다. 이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얼마 전 SBS 보도로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故 장자연의 마지막 유작 역시 미디어 속에서 여성이-약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에서 故 장자연 씨는 텐프로 출신 배우 지망생 역을 맡았다. 영화는 장자연 씨가 고인이 된 이후 개봉됐는데 그녀의 베드신과 자살신이 삭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과연 그녀가 유명하고 인기 많은 여배우였어도 죽음이 이토록 노골적인 구경거리가 되어 입방아에 올랐을까? 그녀는 무명배우였고 곧 연예계의 최하위 약자에 속했다.

죽음 역시 한 영화의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만 비극은 그녀가 ‘편리한 타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명배우라는 약자의 위치에 놓였던 그녀의 운명은, 또한 여성 약자의 운명과도 닮아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은 주로 남성의 시선을 대변한다. 미디어 속 여성들은 그림 속 오달리스크처럼 폭력적으로 욕구를 분출해도 되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녀들이 대중의 인기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한 섹슈얼리티 판타지의 최전방에 선 존재라고 해서 대중에게 그녀들을 일방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 노동하는 인간), 그리고 소외된 육체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노동력과 신체성은 분절된 원자적 단위로 취급되며 대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개별성은 재화에 귀속된다. 여성이 미디어라는 창(窓)속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낼 경우 우리는 그 행위가 결국 ‘출세’라는 목적을 지향하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린되어도 괜찮다고, 그것은 곧 보상받을 수치라고 받

아들이다. 그녀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란 생각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어떤 존재도 자율적으로 그 자신이 ‘상품’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흐리게 만든다. 미디어 속에서 여성성을 대변하며 재현되는 육체는 마치 매출이 모든 것을 보상하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업적 구조 속에서 그녀들은 ‘육체 혹은 성(性)’이라는 회사의 CEO가 아니다. 그 자신이 제품이 되는 아이러니의 대상이다.

직업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노동과 행위는 삶, 혹은 정신과 분리되어 자본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에서 존재의 깊이를 구성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리듬을 만든다는 의미다. TV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만인의 연인’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해서 존재의 존엄을 담은 육체를, 영혼과 감응하는 신체를 희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한순간의 인기로 큰돈을 모은다 해서 그들의 존재 역시 ‘만인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든, 여성 연예인이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체가 빛어내는 행위와 노동에서 분리되지 않고 존재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미디어 속 여성의 신체는 특정 부위로 분절되어 대변됨으로써 더욱 빠르게 대상화된다. 한때 성형외과에서는 전지현 같은 눈, 이영애 같은 입술, 최지우 같은 코를 만들어달라는 여성들이 많았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육체는 이처럼 분절되어 인식 되는데, 이는 노동의 분업화와 닮아있다. 노동 분업은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이 어떤 제품의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사를 조이고 프레스 버튼을 누르고 모양을 찍어내는 것이다. 신체를 분절하는 것 역시 비슷한 양상을 만든다. 각각의 부품(부위)이 연쇄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완성되는 ‘존재의 조화성’과 ‘생명력’은 중요치 않아진다. 아니, 도리어 그것은 분해되고 소멸된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여성의 신체

를 위 아래로 훑는 카메라 앵글과 성적 알레고리가 되는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허벅지)만을 포착하는 렌즈는 정작 ‘꿀벅지’를 가진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러한 미디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하며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켰다. 그는 육체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반면 정신(이데아)은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육체는 ‘착한 것’이 되었고 정신은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정신과 감응하는 아름다운 육체, 성적 긴장감을 만드는 노출의 ‘주체’는 사라지고 리비도를 분비시키는 육신 ‘덩어리’만이 그녀들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이는 비인간적이다. 2011년 대한민국의 오달리스크, 화면속의 그녀들을 쾌락의 노리개로 만드는 유기적 논리의 정점인 것이다.

‘방관자’라는 약한 고리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미디어의 생리는 그것에 노출된 인간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강렬한 맛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맛 자체가 기억에서 잊혀진다고 한다. 하지만 향락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조금만 양념이 덜 돼도 싱겁고 무미건조한 맛이라고 느낀다. 대중은 긴 바지를 입은 여자 연예인을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목까지 올라오는 상의를 촌스럽다고 생각하거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먹을거리로 치환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짜고 맵게 먹어 당장이라도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걸릴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2010)을 말하며 정리하고 싶다. 이 영화는 거친 화법과 직설적인 메시지로 도리어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긴 독특한 작품이다. 복남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련의 가해자들을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친구 해원마저 해치려한다. 해원은 그런 복남을 이

해하지 못하고 ‘어쩌서’라는 질문을 던진다. 복남은 답한다.

“너는 너무 불친절해”

복남은 고립된 섬 무도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사람들을 위한 감정의 배설구, 욕구의 배설구로 지냈다.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고 노골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폭력과 거짓에 맨 몸으로 부딪쳤다. 물론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진 않았다. 그런 그녀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태양에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최초이자 최후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해원은 복남이 당한 폭력의 목격자였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것에 답하지 않는 은유적 병어리였다. 그녀는 복남의 어린 딸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지만 복남을 위해 어떤 말도 해주지 않는다. 그녀는 타인에게, 약자에게 불친절한 전형적인 방관자였다. 미디어 속에서 화려한 핀 조명을 받는 그녀들을 보면 김복남이 떠오른다. 복남이 겪은 폭력이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고, 노골적인 성격이었다면 그녀들이 겪는 폭력은 정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불분명하다. 카메라 앵글은 의도적으로 여성의 순결성을 탐닉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휴지든 천 조각이든 대체 그것이 그토록 많은 기사를 양산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 그녀들의 실수와 노출을 클로즈업 한다.

영화는 복남의 죽음으로, 해원의 변화로 끝을 맺는다. 해원은 자신이 본 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한다. 그리고 젖은 몸으로 거실 바닥에 눕는다. 그녀의 몸은 작지만 거대한 섬, 무도와 오버 랩 된다. 그녀의 몸은 상처받고 파편화된 복남의 서사로 전이된다. 해원의 몸은 두 존재가 감응함으로써 만들어 내는 “공통의 신체”가 되고 그녀는 타자의 불편함을 자신의 안에 아로 새긴다.

무대 위 오달리스크를 보며 이제 우리도 스스로의 불친절을 진단해야 할 것이다. 그녀들은 판타지 속에 존재하는 자위도구도 아니고 단죄되어야

할 성녀도 아니다. 목격하고 발언해야 한다. 불편은 변화를 이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그것이 비록 늦었다 생각될지라도 언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3

- 생존자 말하기
- 액션으로 피어나는 말하기
- S의 말하기
- 성폭력과 사람들
- 혼자가 아니게 되기 위한 연습
- 사례연구
- 사법 절차 내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기
- 상담통계
- 2010년 상담통계

액션으로 피어나는 말하기

관점

생존 : 명명하기 & 변명할 수 없는 몸의 기억

오랫동안 나는 생존자 혹은 피해자로 자신을 명명하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생존자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겪어야 할 감정, 생각 등을 직면할 자신이 없었다. 성폭력 사건이 있던 그날부터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몸이 말하는 이야기였는데 나는 숨고 싶었다.

눈물 한번 흘리고 쿨하게 보낼 수 있는 사건이기를 바란 적도 있었는데, 원가족, 친구, 혹은 알지 못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왔다. ‘지배적인 언설’로 잃어버린 자신의 사회성, 역사성을 되찾는 ‘다른 이야기’로 통해서 천천히 변화를 겪어온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 직면하면서 나는 아침마다 버스에 타면 울고, 내리면 아무렇지 않는 척 출근하기를 반복했다. 아무리 해도 사라지 않는 플래시백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혼자서 부르르 떨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동안을 보냈다.

가족의 2차 가해로 마음이 얼얼해졌을 때는 ‘그래! 몸의 기억은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무기잖아. 괜찮아.’ 라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기억에 기대어서 나는 점점 자신에게 다가갔다.

액션 : 준비하기

힘들게 했던 플래시백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쯤에 무의식에서 툭 하니 던진다. 이 사건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나를 압도하던 성폭력은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라는 말을 전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꼭 대면하자란 마음이 들었고, 동생에게 약속을 잡아달라고 해두었다. 그리고 나니 앞으로 내가 들어야 할 가해자와 세상의 말이 생각 속으로 쏟아져 들린다.

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시큼한 농담도 하고 싶은데……’ 하면서 평상시 잘하지도 못하는 농담도 적어보고…….

액션 때 필요한 말을 조금씩 채워 넣었다. 나는 디데이를 명절로 잡고, 친척들이 있는 앞에서 하고 싶은 대담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생만 같이 하는 액션이 좀 불안하기도 했다. 이 액션은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싶었고 ‘작은 말하기’에 글을 올리자, 말하기 참가자가 말을 걸어왔다. 액션을 함께 해도 좋다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한 명 정도 더 있음 될 거 같아서 친구 한 명을 부르고 그렇게 액션 준비를 했다.

꿈에서 페미니스트 10년의 서원을 이루는 날이라고 했지만, 일상이 온통 액션하는 날에 집중되어 있는 그 자체는 지치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 실은 액션을 얼른 하고,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액션 :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하기

친구들을 마중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낮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다. 수동적인 협조만 하겠다는 동생이 '아예 마음을 바꾸어서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액션은 해야지 싶었다. 친구들을 데리고 읍내 버스를 타고 들어갔더니 예약해둔 레스토랑의 '룸'에 문이 없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터미널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먹고 있는데 가해자가 안 온다. 식당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고, 식당에서 하는 게 힘들 것 같았다.

때마침 명절이라 비어있는 친척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다시 이동했다. 밥상을 펼치고, 준비물, 대본을 꺼내두었다. 이를 어찌, 떨린다. 친구 말처럼 청심환을 먹을 것을 그랬나 싶다. 2차 가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지 하며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떨고, 나와서는 태연한 척했다.

그리고, 드디어 가해자(외삼촌)가 왔다…….

처음에 소파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을 바닥에 앉히는 데 애를 먹었다.

말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터지니까 말이 계속 이어진다. 하고 싶었던 농담은 농담처럼 표현이 안되고 너무 진지(!)해져서 어쩔 수 없이 뺐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사건의 동향처럼 세상의 가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강조(!)해서 하기도 했다.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추임새도 넣어 주기도 하면서 가해자가 말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말하기>를 했다.

한동안 말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가해자라는 게스트가 굳이 필요가 없어졌다. 소금을 뿌리고 마무리했다. 비로소,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하기>를 끝냈다.

변화 : 또 다른 액션

액션을 한 다음날 새벽녘에 불기가 어려운 피리가 아니라 내 호흡에 어울리는 오카리나를 부는 꿈을 꾸었다. 오카리나 위에는 분홍색 명주실이 있었는데 저 멀리까지 날아갔다. 이제 자신의 호흡에 어울리는 (뚝)소리를 찾아낸 기분에 꿈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건이 생각, 몸의 감각으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그저 며칠 전 먹은 점심 같은 그런 일이 되었다. 한때는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 액션이 되었다. 시간이 걸렸지만, 또박또박 걸어온 그 과정을 통해서 비극 위에 서서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긴 듯하다.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과 보면서, 친구들의 <말하기>도 들으며 그렇게 내가 한 액션이 또 다른 액션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기는 어둠의 강을 함께 건너고 있는 수많은 생존자들의 말하기를 통해서 피어났음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싶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존자들이 만드는 또 다른 액션으로 변화하길 바라며…….

가해자에게 말하기 TIP

1.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의 의사소통은 2차 가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 자신과의 직면에 방점을 두는 게 원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지자의 동행 등으로 그 자리가 자신에게 최대한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하고 싶은 액션을 모의로 (상담 등 안전한 환경에서) 해보고 나서, 자신의 감정, 생각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의 이야기

S

상담소와 인연맺기

내가 처음 상담소에 가게 된 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하고 싶어 서였고 때마침 실직상태였기에 막연하게 상담소의 상담원 교육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왕 교육 받은 것, 후속과정인 실습에도 참여했고 전화상담 자원활동까지 해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는 동료 자원상담원들에게 소소하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 그중에는 고등학교 때 내 가슴 만지고 도망간 놈부터 버스 안에서 엉덩이 만진 놈, 지하철에서 지퍼 열고 다니는 놈, 하룻길에 출몰하는 바바리맨 등등……, 가볍게 얘기 할 수 있는 수준의 놈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말 그랬다. 남들에게 이야기할만한 수준……. 더 이상 다른 피해 사실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촌 오빠와 초등학교 6학년 담임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었다는 사실은 같이 상담하는 분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때의 나는 상담 받으러 오는 내담자가 부러운 지경이었다. 저렇게 자기 피해를 말할 수 있다

나……. 나는 점점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는 게 버겁다고 느끼고 있었다. 상담을 하는 일은 즐거웠지만, 내 안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이견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에 돌덩어리를 진 채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야 그때의 나는 아주 천천히 내면을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다. 그렇게 상담을 하는 즐거움이 시들해지자 자연스레 상담소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상처와 대면

다시 상담소를 찾게된 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에게 치료 중 성추행을 당해서였다. 자기 성기를 내 허벅지에 비비적대는 그놈에게, 나는 어버버 하다 도망치듯 나왔고 숨을 고른 후……, 여기서 그냥 가면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받은 것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1층 로비로 가서 항의를 했다.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일단 접고, 집에 돌아와서는 1366에도 전화하고 병원에도 전화하여 사과를 요구했다. 당사자의 사과를 받아내었기에 일이 끝났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 맘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1366에서 연결해 준 다른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을 받았다. 내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전화상담보다는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자고 했다. 일주일 뒤 약속을 잡고 택시를 타고 상담소까지 갔다.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상담원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시원스레 하다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 피해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그랬다. 맘씨 좋고 이해심 많은 원장님에게 초등학교 때 경험한 끔찍했던 성추행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담당 상담 선생님이 정해졌고 그 분을 처음 만난 날, 드디어 나는 내 친아버지에게 당한 성추행을 못물 터지듯 쏟아냈다. 20대까지도 기억 저편에 있었던, 정말로 생각도 잘 나지 않던 머나먼 기억이 조각난 파편들처럼 떠올랐다.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 글을 쓴 건 상담 받으면서 그날그날 있었던 감정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1차 상담을 받고 이런 글을 썼다. 이때는 내 상처를 인식하고 분노를 느낀 상태인 것 같다.

“10대 때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하면서 살았다. 사촌과 초등 6학년 담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는 알면서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했다. 엄마가 알아도 아버지는 계속 나를 성추행했다. 내가 10대 때는 모든 아버지가 다 성추행 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다.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이제와서야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낀다. 역겹다. 우습다. 난 당신을 비롯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2차 상담 때 쓴 글이다.

점점 더 분노를 느끼고 어렸을 적 나를 위로하는 마음이었다.

“내 마음에 분노를 서서히 느껴 간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무기력 하게 있었다.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냥 무기력 했던 것이었다. 엄마도 내가 힘든 건 생각지 않고 이혼녀 되기 싫어서 가정 깨기 싫어서 그냥 참고 살았다. 엄마도 밍다. 내 안의 나. 10대 때 아주 불쌍했던 작은 아이. 20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살았던 아주 조그맣고 가려진 아이가 목놓아 울고 있다.”

3차 상담에 때 쓴 글이다. 성폭력 이후 현실에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를 추스르는 마음이었다. 3차 상담 때 쓴 글이다. 성폭력 이후 현실에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를 추스르는 마음이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상황을 피하면서 살아왔다. 갈등에서 거절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할 까봐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에서 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가? 왜 착한 딸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나의 생존 전략이었

다. 내가 참고 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죄책감을 갖지 말자. 그냥 갈등을 인정하고 살자. 할 말은 하고 설사 거절당하더라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에 맞게 반응하자. 상대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야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착한 딸로 생존 하려 했던 내 삶의 부작용이라니...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말하기의 시도

5번째 상담이 끝나고 우연히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 엄마가 요즘 내가 이상하다고 무슨 상담을 받으러 다니느냐고 물으셨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엄마가 정말 간곡하게 말해 달라고 했다. 혹 사촌오빠 일 때문이냐며 그냥 힘들겠지만 잊어버리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난 화가 났다. 이제 와서 까지 덮으려고만 하는 엄마에게 편지를 날리고 싶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피해당한 사실을 엄마에게도 말하게 됐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처음에는 전혀 기억을 못하셨다.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 엄마도 그제야 기억이 난 듯하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엄마는 니가 말도 못하고 힘들었을 테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다. 그런데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나 알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겠다고 하셨다. 혹시 다른 식구들이 알게 될 것을 무척이나 걱정하셨다. 엄마는 아빠가 엄마가 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집안이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신 듯하다. 마지막 10번째 상담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말할 준비가 그때까지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는 조금해 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날이 왔다. 엄마가 동생 집에 갔다가 감정 통제를 못하고 그냥 내내 울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엄마를 걱정하는 착한 딸인 양 고향으로 혼자 내려갔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덜덜 떨었지만 다시 용기를 냈다.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무슨 말을 할까 적고 지우고 또 적고 부모니까 부모라서 더 무섭고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여 엄마, 아빠 두 분에게 할 말 있다고 하고 방에 앉으시게 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으니 두 분께 읽어 드리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읽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내가 직접 읽겠다고 하고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 눈 피해서 내 팬티에 손 넣고 마음대로 만진 것 나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무슨 일 입니까? 어린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버지는 나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딸? 여자? 성적인 도구? 부모 자식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앞에 정말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새벽에 잠깨서 숨죽여 울면서 날을 새고, 십이지장 궤양 때문에 몇 달을 약을 먹고 심리 상담을 10번이나 받았어요. 이 긴 괴로움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 이 마음 속에 쌓인 아버지께 대한 원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세요? 도대체 양심이라는 건 있는 분입니까? 아버지 혼자 잘먹고 잘 살면 그뿐인가요?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를 줄 아셨나요? 뻔뻔스럽습니다.

구구절절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니 아버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니 니가 말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니가 그리 힘들었다면 어쨌거나 미안하다고 하셨다. 엄마는 “난 안 믿어”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가 안 믿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건 그렇다고 과거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수준 좀 높이자고 말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 엄마, 아빠도 알고 상담 선생님도 아는 일이라고

말이다. 이제 와서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 보자고 하는 얘기라고 엄마의 짐도 좀 덜어드리고 아버지도 좀 죄책감 같은 거 느끼면서 살라고도 했다.

못다 한 이야기

그때 못다 한 나머지 말을 지금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누구도 자식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 안의 상처 받은 마음은 상당 부분 치유되었지만 엄마가 아빠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건 치유된 내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내는 것이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나? 엄마 말대로 아빠에게 말해서 집안이 풍비박살이라도 났나? 엄마는 틀렸다.”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버지를 평생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사과할 기회를 준 것이니 고마워 해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는 것, 아버지의 상처가 뭔지 모르지만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 아버지 행동을 반성하고 아버지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해라.”

맺음말

내가 지금까지 괴로웠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바람 때문이었다. 내 어깨의 짐이 단 한 번의 말하기로 다 내려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하다.

매일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었고 매순간 용기가 필요했지만 지난 10년을

혼자가 아니게 되기 위한 연습

밤의 아이

돌이켜 봤을 때 정말로 상담 받기로 한건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나는 목 늘어난 티, 반찬 국물 묻은 얼룩, 보풀 생긴 니트가 보이기 시작했고, 코미디 프로그램이 전혀 안 웃겼는데 이제는 배꼽잡고 하하 거리고 웃기도 한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어야 된다. 불행하게 사는 것은 쉽다. 아무 노력도 필요치 않으니까. 나는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었고 이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무슨 일이든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행복이 이리 가까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았구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그조차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용기 내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다. 혼자보다는 돌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오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지 한이 없다. 한 맺힌 인생, 그 따위 것 정말 싫다.

혼자 살고 싶었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았던

기억하는 한 나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혼자였다. 내게 마음의 상처와 성폭력의 상처를 준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도 믿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인간 관계는 어색하고 어렵기만 했다. 오죽하면 예전의 소원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책을 읽으면서 사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간 소원대로 혼자만 있는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서 있으면 회사생활로 지친 내 마음이 회복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난 내가 너무 고독해서 그랬다는 걸 알지 못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친구가 없어도 외로움 같은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며 당황하며 더 우

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그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나마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작은’ 말하기의 시작

그렇게 몸도 마음도 점점 나빠지던 난 이래선 정말 죽겠구나, 싫어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뒤져가며 날 도와줄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간 망설이며 가지 못했던 작은말하기 모임에 2008년도에 처음 나가보았다. 거기서 말을 하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과 연결된 느낌을,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경험을 공유한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다른 이들보다는 몇 배로 공감할 수 있었고, 서로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있고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 편히 눈치 안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글도 아니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이때가 처음 시작일 것이다. 아, 나는 혼자서는 살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일지라도 내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거의 죽을 뻔했기에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 마음에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들의 눈빛, 한마디 말에 내가 삶을 다시 살 에너지를 받는다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 시작된 훈련

만나서 이야기하기 이때부터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할까를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있다. 어릴 때 매일 혼자서 책만 읽던 나는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해야하고 친밀한 감정이란 것은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경험과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3년이나 지난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나는 혼자서는 살수 없구나, 를 자각하고 조금씩 더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랄까.

처음에 나는 무턱대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게 엄두가 안 나고 겁나 작은말하기 모임처럼 내 자신을 솔직하게 밝혀도 위험부담이 적은 집단 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우울증으로 일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것들로만 찾아봐야했는데 찾아보니 생각보다 이런 곳이 조금은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던 곳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떠올려 보겠다.

한 달에 한 번 씩 열리는 작은말하기 모임 외에도 나는 더 자주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찾아보다 알게 된 A상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여성들끼리 모여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무료로 열리고 있었다. 또한 힘들 땐 어느 때곤 찾아오라며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초기에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면 무작정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곤 했다. 그곳에 가면 같이 밥을 나눠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의 돌봄이나 사랑에 굶주려있던 내게 그곳에서 나눠먹는 한끼의 밥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뒤에 우연히 알콜중독 가정에서 자란 미혼자녀들끼리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자조모임을 알아내 거기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는 알콜중독이었기 때문에 나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은 각각이여도 놀랍도록 비슷한

면들이 많았다. 그 모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모임을 인도해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것 이외에도 도움말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곳에서도 여태까지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또한 거기에서는 이미 치유과정을 시작해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졌으나 좀더 나아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글로 이야기하기 인터넷에서 받았던 지지도 빼놓을 수 없다. 우울증 초기부터 나는 블로그를 꾸준히 썼었는데 나의 우울한 마음과 이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을 익명을 빌려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우울하고 힘든 이 이야기를 누가 읽을까 생각했었는데 한명 두 명 내 블로그엔 손님이 늘더니 나중엔 꾸준히 찾아와주고 댓글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주는 이웃들이 많아졌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들의 위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하는 내게 온라인 상 사람들의 따뜻함은 사람들에 대한 겁과 거부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블로그를 잘 쓰지 않아 연락이 끊겼지만 내게 인형과 선물을 보내주었던 이웃, 내가 며칠 글을 쓰지 않자 비공개로 '걱정된다'고 안부를 물어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떠오른다.

독서치유모임도 생각한다. <따귀 맞은 영혼>이라는 심리학 책을 같이 읽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우울증을 먼저 앓고 벗어나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는 그전까지 나와 비슷하게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나아져가고 있는 사람을 책이 아닌 실제에서 만나본적이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실체를 본 기분이었다. 이분에게서 '조금씩 하나씩 한다, 어떻게든 즐거워질 만한 일을 찾아서 조금씩 해본

다' 등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우울증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 지침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나를 무료로 상담해주었던 H 선생님도 정말 고마운 분이였다. 이분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에 만났던 상담자들과 달리 우울증을 직접 앓아봤던 분이라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었고 더 안심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씩 만나 처음엔 슬프고 아픈 나의 마음을 실컷 표현하다가 나중엔 조금씩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자기주장을 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극심한 아픔 끝에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니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다. 찾아갔던 상담소에서 내가 원하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날들도 있었다. 괜히 이야기했다며 가슴치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럴 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음의 근육을 다듬으며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따뜻한 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차갑고 무서운 것 역시 아니었다. 정말 찾아보면 다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거부하고 마음을 닫았던 인간 세계에는 내가 모르고 죽었으면 억울했을 다정함이나 사랑도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정말로 이대로는 혼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게 손 내밀어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나는 여태까지 살아남아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내 삶에서 거의 없었던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해보려고 나는 이런저런 심리치료 워크숍이나 집단상담들에도 참여했고 그런 경험에서 사람들과 마음이 통

할 때 느껴지는 기쁨, 삶의 맛이 무엇인지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는 많다.

공감을 받거나 지지받을 때는 좋지만 인간관계가 언제나 그럴 수는 없는 법. 조금이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나 갈등의 순간들은 견디는 것. 그게 내게는 여전히 너무 힘들다. 머릿속으로는 견디고 계속 만나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너무 힘든 것이다. 이런 힘든 순간들이 두려워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던 건지도 모른다. 혹은 사랑받지 않을 수 있다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조차 거부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미숙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나라도 그래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또 나의 어린 시절 몇몇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지. 모든 게 다 나의 어린 시절에서 기인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해소되기 어려운 '거부의 경험'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이다.

마음에 근육이 너무나 약한 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너무 크게 상처받고 도망쳐버리니까. 그리고 나면 상처받는 내가 또 아주 싫어지는 것이다. 도망치고 스스로를 싫어하고 도망치고 싫어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겪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렇게 혼자 성을 짓고 혼자 살았던 것이다. 이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아직은 너무 힘들다. 삶에 사랑이 있고, 그런 삶이 어찌면 가능하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지만 그걸 진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렵다. 차라리 모를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만큼.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다. 정말 혼자였다면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내게 손을 내밀면 잡아줄 손을 믿으면서 조금씩 인간세계에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연습과 경험을 해나가야겠다. 그래서 언젠

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사법 절차 내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기

홍상희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한 피해 생존자들이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대면하게 되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특히 고소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며 절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를 보며 피해 생존자들은 실망과 분노로 힘들어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을 느낀다.

내가 지원한 A씨 역시 이러한 문제로 상담소를 찾아왔다. A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해 달라는 소환장을 받고, 가해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 큰 공포에 휩싸였고, 상담소에 전화하여 재판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용기를 내어 고소했지만, 재판에 가서 가해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A씨를 보며 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A씨를 위해 '증인신문의 비공개'와 지원자의 동석을 요청하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였다. 담

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 하니 재판에서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해두었다. 그리고 면담을 하며 재판에 가서 예상되는 질문이나 상황을 알려주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두려움 반 안심 반으로 A씨는 법정에 갔다. 증인 신문 비공개 요청 때문에 법정엔 방청객 없이 조용한 상태였다. 검사가 판사에게 가해자를 내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직접 대질을 해야 한다는 판사의 판단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A씨는 당황한 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증언을 해야만 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의 공격적인 질문에 억울한 마음을 눌러가며 증언을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할 때 즈음, 가해자가 자신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며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서 A씨에게 직접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가해자의 비난 가득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A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게다가 가해자가 일어서면서 거리가 더 좁혀졌다고 느꼈는지 가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으나, 법정에서는 A씨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가해자와 가해자측 변호사는 물론이고, 판사도 A씨가 가해자를 기피하려는 태도를 보고서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A씨의 반응은 성폭력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심리적 외상)을 한 사람이라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단서를 접했을 때 사건 당시의 심리적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A씨는 더욱이 가해 당사자를 대면했으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가해자가 자신이 직접 심문한다고 했으니 비록 법정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이어서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가해자를 먼저 내보내고 진행할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판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A씨는 재판 내내 가해자를 대면한 채, 본인도 '두려웠다'는

것 외에 충분히 언어로 구체화하지 못한 사건 당시의 감정을 표현해 내기 위하여 끙끙 앓아야 했다.

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권리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는 사법절차에서 가해자 대면 시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가 충실히 지켜진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B씨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대질신문이 끝난 후 먼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였고, C씨는 재판에 갈 때 법원 입구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서 들어갈 수 있었으며 가해자를 배제하고 증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다른 수사관과 판사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도 다른 수사관과 판사를 만났더라면 대질신문 이후 가해자를 만나거나, 법정에서 혹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안고 법원으로 가야 했을 것이다. 담당자들의 의식과 이해가 부족했다면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직권으로 가해자를 배제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자면 비록 관련법에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분리신문제도 같이 피해자가 사법절차 내에서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관은 고소인과 증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수사·재판기관은 피해자가 사법절차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부

터 적극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고지해 줄 필요도 있다. A씨가 증인 소환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었다면 덜 불안해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증인을 단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안전하게 공판과정을 거칠 권리가 있음을 새겨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주로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절차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피해자들이 대질에서 가해자를 대면하고 당당히 맞서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낱알이 밝혀주는 것이 '피해 받은 자'로서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회복하는 '생존자'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지원자로서의 기대일 뿐,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심과 2심에서 가해자를 대면하면서 최근 A씨가 여전히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싫지만, 이전처럼 그 사람이 그저 무섭다기보다는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허풍떠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말을 들으며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A씨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여전히 떠올라 안쓰럽기도 했다. 다음 사람은 안전하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상담통계 현황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2010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4,303건(66,868회)이다. 2010년을 살펴보면, 전체상담 2,227회(1,474건)중 성폭력상담이 총 2,054회(1,312건), 기타상담이 총 173회(162건)다. 전체상담 중 성폭력 상담비율은 1991년 66.5%에서 시작하여 20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며 2010년에는 전체상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상담 의뢰인의 상담현황에서는 총 2,227명 중 본인이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1,202명(54%), 대리인에 의한 상담이 627명(44.9%),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38명(1.7%)으로 성폭력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상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표1〉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을 보면 성폭력상담건수 1,312건 중

성인 여성 피해자가 837건(63.8%)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성폭력 관련 법과 정책이 아동성폭력 중심,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성인 피해 여성의 신체 및 심리적 후유증 치료나 사법절차에서의 지원체계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아래 현황을 볼 때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적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1〉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 상	총 계
여	837(63.8)	248(18.9)	102(7.8)	61(4.6)	7(0.5)	1,255(95.7)
남	23(1.7)	14(1.1)	8(0.6)	6(0.5)	0(0.0)	51(3.9)
여·남	0(0.0)	2(0.2)	1(0.1)	0(0.0)	0(0.0)	3(0.2)
미상	0(0.0)	0(0.0)	0(0.0)	0(0.0)	3(0.2)	3(0.2)
총계	860(65.5)	264(20.1)	111(8.5)	67(5.1)	10(0.8)	1,312(100.0)

가해자의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에서 가해자가 남성성인인 경우가 1,077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남성이 피해자인 51건(3.9%) 중에서도 상대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35건(69.6), 여성인 경우가 16건(31.4)으로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 상	총 계
여	16(1.2)	3(0.2)	3(0.2)	1(0.1)	0(0.0)	23(1.7)
남	1077(82.1)	132(10.2)	28(2.1)	7(0.5)	40(3.0)	1,284(97.9)
미상	0(0.0)	0(0.0)	0(0.0)	1(0.1)	4(0.3)	5(0.4)
총계	1,093(83.3)	135(10.4)	31(2.3)	9(0.7)	44(3.3)	1,312(100.0)

낙태 상담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낙태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한 상담회수가 110회에 이른다. <표3> 낙태 상담현황에서 볼 수 있듯 낙태에 대한 상담은 국가가 불법낙태처벌 의지를 밝힌 연초에 집중되어 있다. 강간으로 인한 낙태상담의 건수는 청소년 22건, 성인 32건이며 기타사유에 의한 낙태상담건수 또한 24건에 이른다. 2009년 강간으로 인한 낙태상담건수가 4건, 기타사유에 의한 낙태상담건수가 4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3> 낙태 상담현황 단위: 건

년 월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1월	3	7
2월	2	15
3월	0	14
4월	0	6
5월	0	5
6월	2	3
7월	0	6
8월	0	5
9월	0	7
10월	1	1
11월	0	1
12월	0	8
총	8	78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은 성인과 청소년은 강간>성추행 순으로 피해 양상이 드러나나 연령이 낮은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성추행>강간 순이다. 유아·어린이의 피해 중 또래에 의한 것은 일방적인 신체적 접촉이 성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감수성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성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성희롱상담 건수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4>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계	강간	강간 미수	특수 강간	강간 치상	성 추 행	성 희 롱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 라 이용 촬영	스토 킹	음화 등의 제조 유통	기 타	미 상	총 계
성인 (20세 이상)	250 (19.1)	37 (2.8)	35 (2.6)	19 (1.4)	331 (25.2)	94 (7.1)	24 (1.7)	25 (1.9)	41 (3.1)	.	.	4 (0.3)	860 (65.5)
청소년 (19세-14세)	105 (8.0)	6 (0.5)	21 (1.6)	2 (0.2)	104 (7.9)	9 (0.7)	6 (0.5)	4 (0.3)	2 (0.2)	.	.	5 (0.4)	264 (20.1)
어린이 (13세-8세)	19 (1.4)	2 (0.2)	5 (0.4)	0 (0.0)	75 (5.7)	3 (0.2)	2 (0.2)	0 (0.0)	0 (0.0)	0 (0.0)	0 (0.0)	5 (0.4)	111 (8.5)
유아 (7세 이하)	9 (0.7)	1 (0.1)	0 (0.0)	0 (0.0)	55 (4.2)	2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7 (5.1)
미상	3 (0.2)	1 (0.1)	0 (0.0)	1 (0.1)	1 (0.1)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3 (0.2)	10 (0.8)
총계	386 (29.4)	47 (3.7)	61 (4.6)	22 (1.7)	566 (43.1)	108 (8.2)	33 (2.5)	29 (2.2)	43 (3.3)	0 (0.0)	0 (0.0)	17 (1.3)	1,312 (100.0)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전체 1,312건의 성폭력상담 중 151건인 11.5%밖에 되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 직장에서,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에서,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는 친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늘 관계를 맺고 살며, 한 공동체 안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극단적이고 대증적인 처벌 정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특정 아동성폭력에 초점이 맞

추어졌다. 2010년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만 보더라도 반성폭력 운동진영에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 왔던 음주에 의한 감경사유배제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및 보호방안 등을 대폭 포용하고 있으나 이를 아동성폭력피해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술과정에서부터 고소, 의료지원과 심리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원스톱 지원센터 뿐 아니라 성폭력전담수사반의 경우에도 성인성폭력보다는 청소년·아동성폭력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힘없고 나약한 존재일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성인여성피해자들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표5>에서 드러나듯이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전자발찌제도, 약물치료요법과 같은 극단적이고 대중적인 처벌 정책에만 관심을 쏟기보다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더 이상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학교·지역 사회 내에서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장기적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또 하나의 두드러진 부분은 낙태관련 문제인데, 상담내용을 통해 불법낙태 단속이후 낙태수술비용이 높아지고 그 결과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혼 여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전가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정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상황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누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므로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법과 제도는 여성의 경험과 입장이 고려되어 만들어져야 한다.

<표5>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유형 계	아는 사람 1112(84.8)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62(12.3)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제공자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94 (7.2)	68 (5.1)	329 (25.1)	77 (5.9)	53 (4.1)	75 (5.7)	61 (4.7)	143 (10.9)	49 (3.7)	76 (5.8)	17 (1.3)	70 (5.3)	151 (11.5)	49 (3.7)	1,312 (100.0)
성인 (20세 이상)	14 (1.6)	14 (1.6)	319 (37.1)	60 (7.0)	34 (4.0)	31 (3.6)	46 (5.3)	60 (7.0)	10 (1.2)	55 (6.4)	15 (1.7)	58 (6.7)	113 (13.1)	31 (3.6)	860 (100.0)
청소년 (19세-14세)	33 (12.5)	15 (5.7)	10 (3.8)	17 (6.4)	17 (6.4)	14 (5.3)	13 (4.9)	59 (22.3)	19 (7.2)	15 (5.7)	2 (0.8)	10 (3.8)	29 (11.0)	11 (4.2)	264 (100.0)
어린이 (13세-8세)	33 (29.7)	24 (21.6)	0 (0.0)	0 (0.0)	2 (1.8)	16 (14.4)	2 (1.8)	23 (20.7)	4 (3.6)	1 (0.9)	0 (0.0)	0 (0.0)	4 (3.6)	2 (1.8)	111 (100.0)
유아 (7세 이하)	12 (17.9)	15 (22.4)	0 (0.0)	0 (0.0)	0 (0.0)	13 (19.4)	0 (0.0)	1 (1.5)	16 (23.9)	3 (4.5)	0 (0.0)	2 (3.0)	5 (7.5)	0 (0.0)	67 (100.0)
미상	2 (2.0)	0 (0.0)	0 (0.0)	0 (0.0)	0 (0.0)	1 (1.0)	0 (0.0)	0 (0.0)	0 (0.0)	2 (2.0)	0 (0.0)	0 (0.0)	0 (0.0)	5 (50)	10 (100.0)

나는 성폭력이 없는 24시간 동안의 휴전을 원한다.
나는 감히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노력하라고 말한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요구한다.
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노력하라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당신은 강간의 위협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틀렸다.

〈안드레아 드워킨, 500명의 남자 청중들에게 했던 얘기〉

4

여성주의로 문화예술읽기
매혹의 몸짓으로 무겁게 말 걸기,
여성 예술가에게 성공과 자기완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날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매혹의 몸짓으로 무겁게 말 걸기,
“여성 예술가에게 성공과
자기완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 블랙 스완

심혜경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바람 불면 날아갈 듯 비오면 녹아내릴 듯 가녀린 외모를 가진 니나(나탈리 포트먼)는 전직 발레리나였던 엄마(바버라 허시)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뉴욕시티 발레단의 발레리나다. 엄마는 니나를 상당히 억압적으로, 그리고 어린아이 처럼 다루며 발레만이 그녀 생활의 전부이도록 키웠다. 올해는 오랜 동안 발레단의 얼굴이었던 선배 베스(위노나 라이터)가 은퇴하면서, <백조의 호수>의 프리마돈나를 뽑는다. 백조의 역할로서는 완벽한 기본기를 가졌지만, 흑조의 유혹과 도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장 르로이(뱅상 카셀)는 니나에게 프리마돈나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다. 니나는 단장 르로이에게 주인공 공역을 청탁하러 갔다가 강제 키스를 당하고 그의 혀를 물어버리는데, 이 일로 그녀는 주인공이 된다. 어렵사리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흑조의 연기가 만족스럽지 않다. <백조의 호수>를 연습하는 사이, 신입단원인 릴리(밀라 쿠니스)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흑조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어 니나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다. 단장에게 성희롱과 다름없는 개인교습을 받으면서 흑조의 자질이 부족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대역으로

뽀뽀한 릴리에게 친구의 감정과 적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니나는 릴리와 밤 외출을 감행한다. 거기에 니나는 엄마의 모든 규율에 반항한다. 그렇게 니나는 성공과 자기완성이라는 강박과 공포, 그리고 광기와 분열 속에서 흑조로 분하고, 마침내 공연을 완성한다.

이 영화는 매혹적인 여배우의 열연, 발레라는 주제를 스릴러로 풀어낸 매혹적인 시나리오와 촬영, 권력과 성애와의 관계를 풀어낸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

지만 이 영화에 매혹되면 될수록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어떤 질문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런 식의 물음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을 업으로 삼는 여성들에게 성공 혹은 자기완성이란 어떤 것인가?

관람 내내 벗어나기 힘든 이 무거운 긴장감의 요체는, 주인공 뒤통수에 바짝 붙어 쫓아 다니는 핸드헬드를 많이 사용하는 시네마베리테적이고 스릴러적인 촬영방식, 주인공의 강박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 클로즈업과 상체만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바스트쇼트를 주로 사용하는 (물론 전략적인) 불친절, 그리고 점점 분열된 자아와 환상으로 치닫는 주인공을 표현하기 위한 거울장면들 때문이다. 여기에 이런 영화적 장치들 말고도 이 영화가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던 이유는 니나가 몸으로 말을 걸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타킹을 신고 토슈즈의 리본을 꼭꼭 조여 발에 딱 맞추는 일도, 거울 앞에서 딱딱한 코르셋과 발레복을 입고 기형적이리만큼 마른 몸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칭도, 알 수 없는 가려움에 흠집이 난 그녀의 벌건 등도, 현실



Black Swan (2010)

과 환상을 넘나드는 피가 똑똑 떨어지는 그 갖가지 상처들도, 단장의 억지 키스와 강간에 가까운 교습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었던 자위행위와 환상 속 릴리와와 정사장면 모두가 그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여성이 이성별화된 권력구조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성공과 자기완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말이다.

니나의 말 걸기 1

성과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완성과 성공을 생각해 보라!

식상할 지경이지만 화가 또는 사진작가와 모델, 감독과 배우, 안무가와 무용수. 그리고 남자와 여자, 전자는 권력자고 후자는 피권력자다. 예술사에서 이 둘의 사이는 곧잘 성을 매개로 한 권력관계로 쉽게 환원된다. 안무가 겸 단장인 트로이는 니나의 억압된 성, 성적인 무지를 벗어나야만 흑조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서 니나를 성적으로 추행하고, 자신과의 잠자리를 암시한다. 니나가 불안에 떨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분열된 환상 속을 넘나드는 이유는, 단장 트로이가 이미 버린 선배 베스의 전철을 보았으며,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게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 릴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트로이와 잠자리를 하여 그녀의 성적 무지를 벗어난다면, 어쩌면 그녀는 트로이의 말대로 완벽하게 흑조를 연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발레단의 간판스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선배 베스처럼 소모될 것을 안다. 하지만 니나는 이 안무가와 무용수의 위계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언제든지 대체(다크호스 릴리는 아마도 언제든지 트로이와 잠자리를 할 수 있으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이다. 당신의 선택은?

니나의 말 걸기 2

성공과 자기완성의 과정에서 여자들 간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 영화에서 여성들 간의 관계는 억압구조와 경쟁구조도 뿐이다. 단장 트로이를 비롯해, 수많은 발레리노들,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 등이 등장하지만, 이 영화는 분명 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영화이다. 문제는 그녀들 활동의 땅이 남성들이 짜놓은 춤춤하고 탄력 있는 거미줄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땅 속 그녀들의 관계에서 항상 의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남성인 트로이이다. 모녀관계는 엄마의 집착과 간섭이 지나친 억압구조로 그려진다. 그래서 엄마는 마녀나 괴물처럼 그려져 니나의 강박증의 원인인 양 암시된다. 또 선후배 단원들 간의 관계는 경쟁구조만이 가능할 뿐이다. 니나는 (트로이에게 버려져 강제로) 은퇴한 선배 베스의 자리를 차지한 탓에 선배 베스에게 경쟁자가 되어버리고, 단원 중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한다. 열혈에 릴리와 밤 외출을 감행하기는 하나, 그것도 언제든지 자신의 대역이 될 수 있다는 경쟁구조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릴리는 그 어떤 다른 단원들보다도 가장 큰 경쟁자일 뿐이다. 엄마와 딸, 선배와 후배, 동료 혹은 친구. 여자들 간의 관계를 적대시하게 하는 이 남성적 그물망에서 당신은 성공과 자기완성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이다.

니나의 말 걸기 3

현대사회에서 여성 예술인이 성공과 자기완성의 끝에서 왜 분열증자로 분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 영화는 여성주체의 자기완성이란 여성들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경쟁적으로 완성되며, 그 완성이란 것이 남성의 인정(마지막 장면에서 니나는 단장

르로이에게 “내 예쁜 공주님”이라는, 발레단의 간판스타에게만 한다는 바로 그 말을 듣는다)을 얻기 위한 것이며, 성공을 향한 여성의 과도한 욕망은 분열증적 환상으로 인해 자기완성과 동시에 죽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소녀이자 백조의 모습을 한 니나의 성공 혹은 자기완성을 향한 과정에는 흑조의 유혹과 도발적 성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엄마와 선배와 친구이자 동료들 모두 적대시하고 (아버지상인 동시에 이성상인) 단장 르로이의 사랑과 성공(이자 자기완성)을 얻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니나가 따라간 성공과 자기완성의 경로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니나는 이 경로가 진정한 성공과 자기완성의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베스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가 적대시한 것은 그 모든 여성들(엄마, 베스, 릴리)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과 자기완성의 경로가 필요로 하고 있던 자기 안의 흑조였던 것이다. 자기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흑조를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결국 백조의 정신으로 흑조의 몸(혹은 흑조의 정신으로 백조의 몸)을 살해한다.

이 영화는 이분법적인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백조와 흑조, 흰색과 검은색, 여리고 순결한 여자와 닳고 닳은 음탕한 여자,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늙고 추한 여자. 그리고 성공과 실패. 전자는 남성중심적 그물망에서 여성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권력을, 성공을, 자기완성을 원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사이 어딘가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니나가 분열증자가 되어 환상(이자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남성중심적 세계의 논리에서 다른 성공, 또는 그 중간(혹은 그것을 넘어선)의 자기완성을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니나는 백조이자 흑조였고, 남성에게는 여리고 순결한 여자인 동시에 다른 여성을 욕망하는 음탕한 여자였으며, 언젠간 스스로 다다를 수 있는 늙고 추한 여자(베스와 엄마)를 실패의 상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니나는 여전히 이렇게 성별화된 이분법적

위계질서를 고수하는 가부장적 세계에서 분열증자가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성공과 자기완성을 이룰 것인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여성 예술가의 성공과 자기완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죽음을 건 니나의 질문 하나(?) 정도는 건져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영화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시각적으로 전시하는 동시에 규격화된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남성중심의 위계구조의 예술권력을 당연시하고,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폭력의 지점들을 분열자의 환상일 수도 있다는 듯 처리해버렸다. 그러면서도 흑조이거나 백조이거나 상관없이 니나의 춤은 지나치게 아름다운데다가, 이 영화에서 여성의 성공과 자기완성의 욕망을 갑갑할 정도로 예쁘게 폐쇄일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에 한껏 매혹되지만 불편하다. 그리고 니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아직 적절한 답을 할 수 없고, 쉽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도 또 심히 불편하다. 글을 나가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 왜 이 영화는 “블랙 스완”이었을까.

가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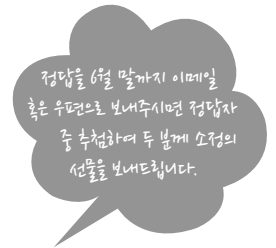
1.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상담에 있어 0000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하는 중요한 운동 방식의 하나이기도 하다. 페미니즘(terminism).
4.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는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독립적·주체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힘'이라는 의미의 '피해자 000'을 중요한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다.
5. 올해 초 국가00000는 성차별 분야 조사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하는 등 그 파행이 갈수록 땅을 치다 못해 뚫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권침해의 감시와 인권증진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6. 미국 드라마 <000의 주부들>은 한 동네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상가족'의 허구를 드러내는 블랙 코미디다.
7.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 크레용과 파스텔의 특색을 따서 만들었다.
8. 올해 초, 성공을 향한 여성의 욕망을 발레를 소재로 하여 그려낸 영화 <블랙00>이 개봉했다. 주인공역의 나탈리 포트만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조.
10.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일은 천구백구십일 년 0 0 0 0 0이다.
11. 1990년대 초, 몇몇 성폭력 사건들로 성폭력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성단체들이 이것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정활동을 전개, 1994년 성폭력000이 제정되었다.
13. 한국성폭력상담소는 0 0에 한 번 상담통계를 발표한다.
14.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초기 0000를 발표함으로써 성폭력의 실태를 세상에 '드러내기' 할 수 있었고, 이는 관련법 제정 및 법률 소송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현재까지도 연간 상담현황을 분석한 이것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15. 현대사회의 핵가족은 결혼한 00와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17.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시설에게 피해자0000 확보는 어렵다면서 시설 간 실적경쟁을 통한 인센티브 예산을 만들어 비판 받고 있다.

세로 열쇠

1. 00000의 신체는 미디어 속에서 분절되어 특정 신체부위만으로 호명됨으로써 정작 당사자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해 3월, 여성단체 등은故장자연 씨의 2주기를 맞아 해당 사건의 재수사와 00000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2. 입고 먹고 자는 것.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가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3. <그랜드 00000>는 화가 앙그르의 대표작이다. 여성이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TV 매체에서의 방식과도 일맥상통한다. 터키 궁전 밀실에서 왕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대기하던 궁녀들을 뜻한다.
9.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올해로 개소 0000을 맞이했다. 사람으로 치자면 스무살.
12. 올해 2월 000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10계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성폭력 상담 현장의 그것과는 차이가 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
14. 199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준비하며 처음 열린 교육 프로그램은 이후 성폭력 상담소들의 성폭력전문000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16. 핵가족의 정상성이 보증되는 방식 중 하나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00하는 아버지와 가족을 보살피는 어머니로서의 성역할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다.

〈반성폭력〉 2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메일 ksvrc@sisters.or.kr

주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은주 구민희(라브) 권명진 김문빈 김상민 김수정 김아름 김예지 김유진 김은숙 김은정 김은지 김자현 김진영 문성훈(나은) 문희영 민정원 박상희 박수진 박정연 손정혜 신명숙 신원제 안채영 양영희 오지원 윤나래 윤준섭 윤지영 이경호 이광숙 이선경 이승기 이영자 이윤경 이입혜경(이혜경) 이주현 이지연 이지오 이지은 이현민 이혜경 이혜진(이진주) 이화자 진보임 전정옥 정슬아(여경) 조일 주광용 최대웅 최명숙 최수연 최예원 최진안 하주현 홍주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강가람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지 강민녀 강보길 강선미 강수준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유리 강은주 강이현주(샬) 강인화 강정희 강지유 강지이 강혜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박옥미 박윤이 구민지 구민희(라브) 구본준 권경희 권기홍 권기욱 권김현영 권명진 권민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숙 권주희 권혜주 금철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현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금선 김나연 김난형 김다미 김대숙 김덕현 김도연 김동령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라희 김매정 김명숙 김문빈 김미경 김미경 김마라 김미랑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미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아 김보연 김보화 김복도 김봉섭 김상미 김상민 김상호 김상희 김선헌 김석재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화 김선의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세중 김세훈 김소명 김소연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승구 김아리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우(김태진) 김연정 김연지 김연진 김연희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신 김영애 김영환 김예람 김예지 김옥주 김용란 김용백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 김은지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웅진 김익창 김이미나 김인애 김인철 김인혜 김일훈 김자경 김자현 김재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종수 권상범 김종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나량)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준경 김탁환 김태섭 김태환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나성일 김하정 김학실 김한상 김한신혜 김혜경 김현 김현정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연 김혜숙 김혜승 김혜연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현 김화영 김효선 김효정 김효진 김희경 김희정 나길희 나미나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성희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귀연 노길옥 노미선 노복미 노선이 노수희 노영태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봉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수연 문숙영 문영민 문준희 문지영 문현정 문효진 박경미(민초) 박경훈 바다위 박덕임 박명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순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세정 박소라 박소연 박수연 박수현 박순복 박승일 박아름 박영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재형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준선 박주연 박준민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하윤경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현준 박현희 박혜진 박효정 방기연 방상의 방은제 배경 배동란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공시랑)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록 백선영 백선희 백선길 백세희 백지선 백현 변계희 변순임 삼목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백열 서범원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정기 서정에 서정표 서정훈 서주연 서태자 서해인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살동민 설연자 성나리 성지는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보경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손희정 송미현 송민성 송수영 송승훈 송애랑 송외숙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혜영 신겸우 신경혜 신나영 신동현 신동훈 신명숙 신명희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영지 신원제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자향 신정혜 신홍훈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신혜성 심난숙 심소영 심수희 심진섭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심혜진 안규연 안문환 안민 안보라 안윤미 안재훈 안창해 안철민 안효룡 안형윤 안홍래 안홍자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영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엄경출 엄인숙 엄지현 연연실 여한숙 엄명덕

엄성희 오경희 오희수 오다현 오미근 오세희 오승환 오숙희 오승이 오신혜 오자영 오정진 오정의 오진아 오현숙 오현주 오혜란 옥민영 우안녕 우완 우춘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소경 원창연 원형섭 원혜숙 유경란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여원(이라) 유연택 유예리 유완희 유은주 유재영 유정호 유혜숙 유향순 유현광 유환숙 옥상근 옥향순 윤나래 윤범석 윤석남 윤소정 윤소희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숙 윤영호 윤영희 윤용미 윤자영 윤정희 윤지영 윤지원 윤지희 윤희연 음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아 이경자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하 이금란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정 이동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미현 이민정 이민철 이병주 이보라 이부덕 이상근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새봄 이서영 이서지 이선경 이성수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희(권승엽) 이송이 이수안 이수용 이수규 이승기 이승숙 이승진 이선정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기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용창 이원경 이원경 이원수 이원실 이원희 이원희 이우정 이우정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미 이은비 이은비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주 이은지 이은현 이은하 이인환 이재순 이재은 이재은 이재인 이정민 이정봉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주현 이주현 이준구 이준범 이준형 이지선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충주 이쾌희 이태숙 이혜사랑 이향실 이현숙 이혜경 이혜정 이혜진(이진주)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효섭 이희경 이희수 이희영 이희화 인정환 임복선 임신자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자영 임주희 임지숙 임지선 임치순 임현홍 임홍섭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정 장서영 장성희 장순례 장영애 장영희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정의 장종순 장진 장혜란 장효정 전광우 전민주 전병미 전보임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애 전유경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희완 정경아 정경애 정교화 정귀원 정다미 정대성 정덕기 정동범 정두영(강혜숙) 정명중 정문영 정민이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소영 정소경 정순옥 정순희 정안나 정영진 정영석 정영선 정에지 정옥실 정유석 정윤경 정윤아 정은선 정재훈(나선영)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현 정진옥 정진희 정창희 정혜랑 정현정 정희선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순주 조성천 조소연 조영선 조용범 조윤주 조은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은희 조은희 조일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진희 조현미 조현아 조형원 조혜영 존다클럽 주광용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인숙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인순 차현영 채우리 채하승연 채현숙 채희영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광욱 최규영 최기홍 최동석 최명숙 최미경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신규 최성숙 최성욱 최성호 최성화 최소란 최수연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순미 최아림 최연순 최영애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유미 최유진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민 최정민 최주정 최지나 최지나 최지희 최현무 추민주 추정의 추주형 추혜인(무영) 춘옥 탁옥희 포도나무상담센터 표현 하다영 하대호 하수은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진옥 한국야마자카마작(주)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병규 한보경 한석구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승희 한양희 한영규 한영미 한윤자 한윤정 한재철 한재운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만 허은주 허이화 허정익 허준석 허효정 현정순 홍민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수희 홍순기 홍유진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진경 홍혜선 황민식 황상하 황성기 황숙희 황순경 황인란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장자 강지연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수 권진주 권행규 김경현 김덕현 김명의 김미주 김삼화 김선영 김예지 김옥란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티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지만(주)EG) 배경 배상희 배정철 배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경 안백린 안형정 야기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호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등림 이명선 이명숙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윤희 이우정 이정숙 이혜정 이혜정 이혜사랑 이화영 이희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희재 조순혜 조성천 조영화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민 최영애 최정순 한국텔레콤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바

성폭력 → Vol. 2

퍼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퍼낸이 _ 이윤상
만든이 _ 김다미
디자인 _ 디자인이즈 02-363-0773

퍼낸날 _ 2011년 4월 13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2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 2호는 김진영 회원님의 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반성폭력〉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소액후원부터 본 지면에 실릴 광고까지, 〈반성폭력〉 발간에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 및 광고 문의 : 02·338·2890~2
ksvrc@sisters.or.kr 〈반성폭력〉 편집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참여'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일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

성별, 성적지향, 나이, 인종, 장애여부 등이 차별을 만들지 않는 사회
진지한 소통과 따뜻한 연대가 살아있는 사회를 상상해봅시다.

이 멋진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기부.

기부는 더 넓은 시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카드이체, 일시기부 등 후원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상담소 후원하기' 메뉴) **전화** 02-338-2890~2

(회비는 연말정산 시 100%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1991 성폭력 뒤집기 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성폭력 제로 사회를 향해

1991~2011년, 1095명의 후원회원, 6만 7264개의 상담일지 - 반성폭력 운동에서 피해자 지원과 여성주의 상담까지, 인간 중심의 성문화와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향해, 성폭력 공화국의 한가운데 편견을 허물고 통념을 깨부수며 당신과 함께한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아름다운 여정!

2011년 4월 13일 발간 |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 15,000원 | 이매진 출판사

성 폭 력 피 해 자 를 위 한 D I Y 가 이 드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지금까지의 성폭력은 잊어라!

고통에 몸부림치기? 수사심 총만?

언니들과 다른 나만의 생존법

2011년 4월 13일 발간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 12,000원 | 이매진 출판사